

 **이투데이 유튜브 채널 생중계**
www.youtube.com/user/etodaycokr

〈코로나19〉

백신이 '경제 회복 구원투수' 되려면 해결해야 할 3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만이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희망일까.

막상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가시화하자 백신이 세계 경제에 특효약이 아니라는 경제론이 제기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윌프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그룹의 닐 셰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일단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되면 다양한 잠재적 영향이 경제에 미칠 것"이라면서도 "백신이 내년 경제 전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제한 같은 조치들이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신이 나와도 경제 정상화까지는 요원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백신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세계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줄 '특효약(magic bullet)'처럼 선전되어 왔다. 백신과 관련한 희소식이 나올 때마다 세계 증시는 환호했다. 일단 백신이 나오기만

① 제한적 효과

승인 기준 '예방 효과 50% 이상' 백신 접종해도 감염 위험 우려

② 공급 불균형

내년까지 80억 화분 유통 가능에도 주사기 등 물량 대다수 국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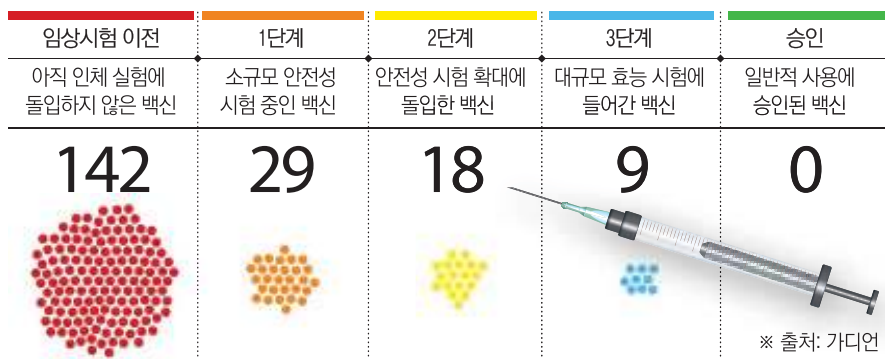
③ 접종 거부

2가지 문제 해결돼도 불안 여전 유럽 인구 절반만 접종의사 밝혀

하면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달콤한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CNN은 셰어링의 분석을 인용해 △백신 자체의 제한적인 효과 △백신의 공급 및 배포 문제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문제 등을 들며 백신이 세계 경제가 지 치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신 임상시험 현황 (단위: 개)



우선, 백신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코로나19에 100% 효과적이지 않은 데다 복용량도 제한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이 적어도 70%의 효과가 있기를 희망한 다면에서도 승인 기준으로는 '예방 효과 50% 이상'을 제시했다. 이는 백신을 맞더라도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런 감염 위험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거나 소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백신 공급도 과제다. 셰어링에 따르면

백신 개발업체들은 올해 10억 화분, 내년에는 70억 화분의 백신 유통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현재 개발 중인 백신들이 모두 승인을 받았다 가정하에 나온 것으로, 실제 공급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전문 비늘과 주사기가 필요한데,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물량이 충분치 않다. 백신을 보관할 유리병을 만들기 위한 자원도 부족하다. WHO는 4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내년 중반까지는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결정적인 것은 이런 일련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정작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 조사에 따르면 백신이 6개월 안에 승인이 났을 때 프랑스인의 61%만이 백신을 맞겠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의 조사에서도 70~75%만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만이 백신이 안전하다는 데 동의했다.

셰어링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는 백신이 있든 없든 간단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영국 질병 전문가 제러미 파라르도 6일 가디언 기고에서 "어떤 백신도 마법처럼 우리를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에서 백신이 유일한 출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개발 속도와 규모,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백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테넷' 영화관 부활 신호탄 쏘다... 전 세계에서 1.4억 달러 매출

크리스토퍼 놀란의 SF 첩보물
美 개봉 첫 주 2020만 달러 수익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성적
온라인 개봉 전환 속 흥행 시험대



미국 노던버지니아의 한 AMC 극장에서 2일(현지시간) 워너브라더스의 신작 '테넷'이 상영되고 있다. 노던버지니아/EPA연합뉴스

지난 주말 북미에서 개봉한 할리우드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SF 첩보 영화 '테넷(TENET)'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와중에 괄목할 만한 흥행 수입을 올렸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미루면서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워너브라더스는

'테넷'이 개봉 첫 주말에 총 2020만 달러(약 240억 원) 흥행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미 영화관 대부분이 문을 닫은 3월 중순 이후 최고의 성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영화가 온라인 개봉으로 전환하거나 개봉을 연기한 가운데 '테넷'이 영화 산업의 부활 여부를 알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일 총 9만3908명에 달했다.

NYT는 '테넷'의 성패에 따라 올가을

더 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극장에 풀릴지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직행할지, 혹은 내년으로 개봉을 미룰지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더우먼 1984'와 제임스 본드 시리즈 신작 '007 노 타임 투 다이'는 올가을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월트디즈니의 '물관'은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사실상 온라인 개봉했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번 주 극장 개봉한다.

'테넷'은 북미 시장에 앞서 지난달 41개 해외 시장에서 먼저 개봉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테넷'은 북미를 포

함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1억462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테넷'은 지난달 26일 국내 개봉 이후 이달 6일까지 누적 관객 수가 약 106만 명에 달했다.

놀란 감독의 티켓 파워를 감안하면 전작들보다 못한 성적이지만 코로나19라는 악조건을 고려하면 '테넷'의 선전은 놀랍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영화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 프랜차이즈엔터테인먼트리서치의 데이비드 A. 그로스 대표는 "극장 안전에 대한 관객의 우려는 여전히 (영화산업 부활을) 억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테넷'의 결과는 긍정적이며 놀란 감독과 워너브라더스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 인정받을 만하다. 현재까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호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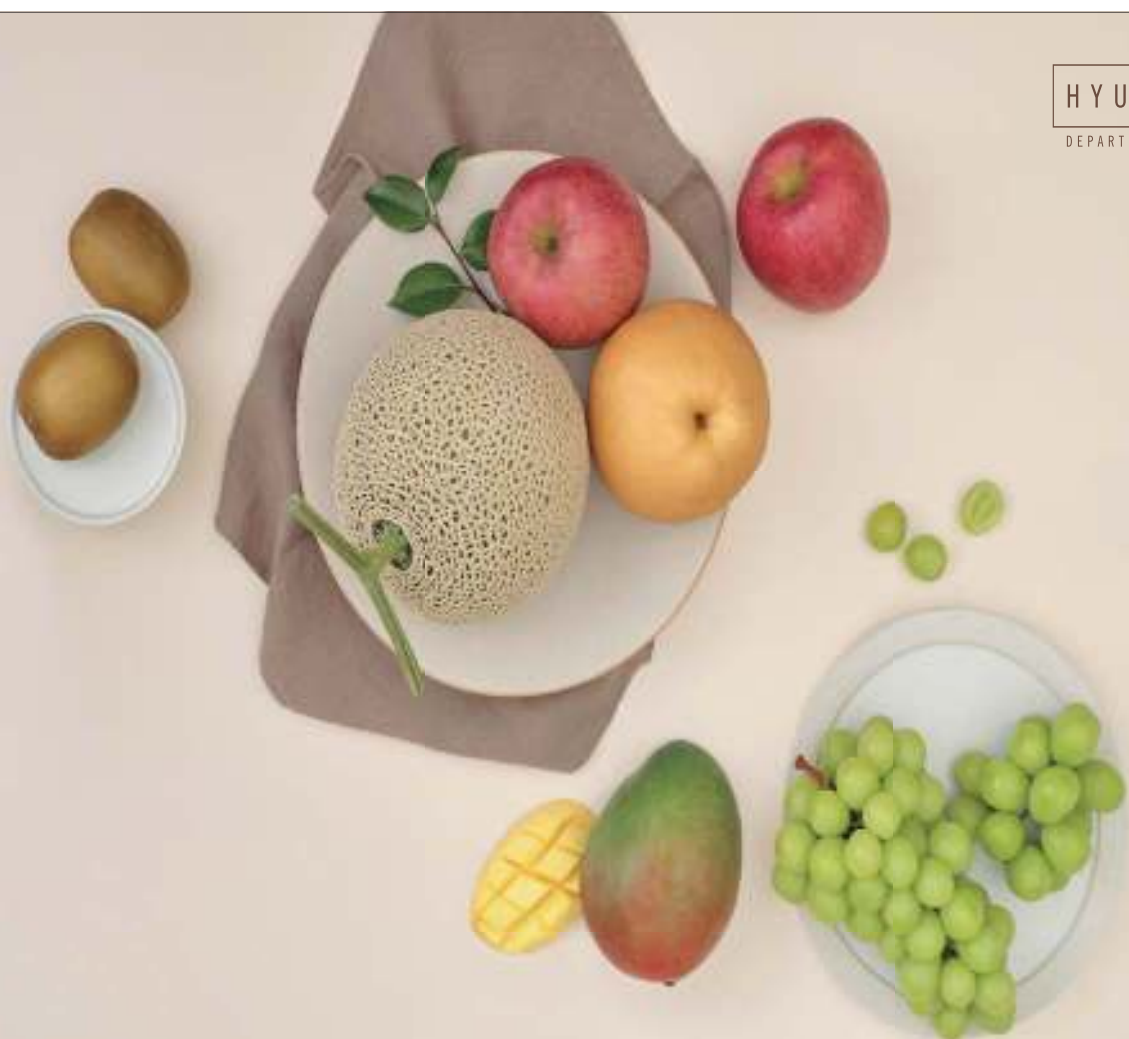
배준호 기자 baejh94@

소중한 분께 최고의 선물을 전하실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이 기업 고객을 위해
방문 없이도 주문 가능한 선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품 맞춤 구성부터 안전한 배송까지
보내시는 분의 품격에 신뢰를 더해 전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80-850-2233 ~ 2234



HYUNDAI
DEPARTMENT STORE

‘한국판 뉴딜’ 대표팀 데뷔전… 관망한 ‘샤이 개미’

“SK바이오팜 같은 ‘파상’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한가)은 아니지만, 비우량주 투자로 마음 졸이는 것보다 야…” “‘통일은 대박’ (박근혜 정부)이란 말에 쪽박 찼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했다가 ‘영탈’ (영혼까지 탈린다)하면 어쩌…”

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를 놓고 입씨름이 벌어졌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첫 국민평가 무대가 열린 날이다. 정부 뉴딜정책의 대표 기업들로 만들어진 ‘KRX BBIG K-뉴딜지수’가 첫선을 보였다. 결과는 1.22%(38.12포인트) 내린 3094.98포인트였다. 이 지수는 데이터센터나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 뉴딜정책과 이를 대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 기대를 담고 있다.

‘샤이(shy) 개미’는 일단 평가를 유보했다. 정책 수혜주에 대한 정확한 색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지수별 평가가 갈렸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평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숨기는 것을 가리켜 흔히 ‘샤이(shy)계층’이라 부른다.

다만 스마트대한민국펀드·성장사다리펀드 같은 정책펀드는 지금도 있지만, 정부가 다수 국민도 투자할 만한 펀드를 만들겠다고 나선 만큼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K-뉴딜 주가지수 내림세로 첫 출발=이날 ‘KRX BBIG K-뉴딜지수’는 1.22% 하락한 3094.98포인트를 기록했다. 섹터별 반응은 달랐다. 바이오 섹터만 나 홀로 상승세를 보였다. ‘KRX 바이오 K-뉴딜지수’는 전장 대비 63.86포인트(1.84%) 상승한 3540.55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KRX 2차전지 K-뉴딜지수’는 -2.34%, ‘KRX 인터넷 K-뉴딜지수’는 -1.92%, ‘KRX 게임 K-뉴딜지수’는 -0.64% 내림세로 출발을 알렸다.

지수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나라 밖 변수 때문이란 분석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폭락 여파가 국내 증시에 부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 유명 헤지펀드 운영자 빌 애크먼은 ‘블룸버그’ 텔레비전에 나와 “주가 상승이 끝났다는 신호는 분명 아니지만, 미국 역사상 아주 불확실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누적된 피로감도 한몫한다.

링 위에 오른 ‘BBIG’

첫날 1.22% ↓ 3094.98P로 마감
유일하게 바이오 섹터만 1.84% ↑

‘나스닥 폭락’ 국내시장에 악재
‘운용기간 5~7년’ 2030엔 부담
원금보장 효과에도 매력 떨어져

시장 기대가 크다는 것은 수익률이 말해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종가 기준 K-뉴딜지수에 편입되는 40개 종목의 평균 시가총액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100.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 오르는 데 그쳤다. 40개 종목 중 오르지 않은 종목은 아프리카TV 1개뿐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희 분야 바이오 업종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평균 187.27% 올라 가장 크게 성장했다. 이어 2차전지(89.15%), 인터넷(74.92%), 게임(50.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중 유동성 흡수하는 데 성공할까=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에 투자하거나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뉴딜 펀드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얼마나 흥행에 성공할지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가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나선 만큼 안전 추구형 투자자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평균 35%를 출자해 민간 자금 65%와 매칭하는 구조인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 투자자로서는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지더라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성이 높아 기대 수익률이 2%대 중반만 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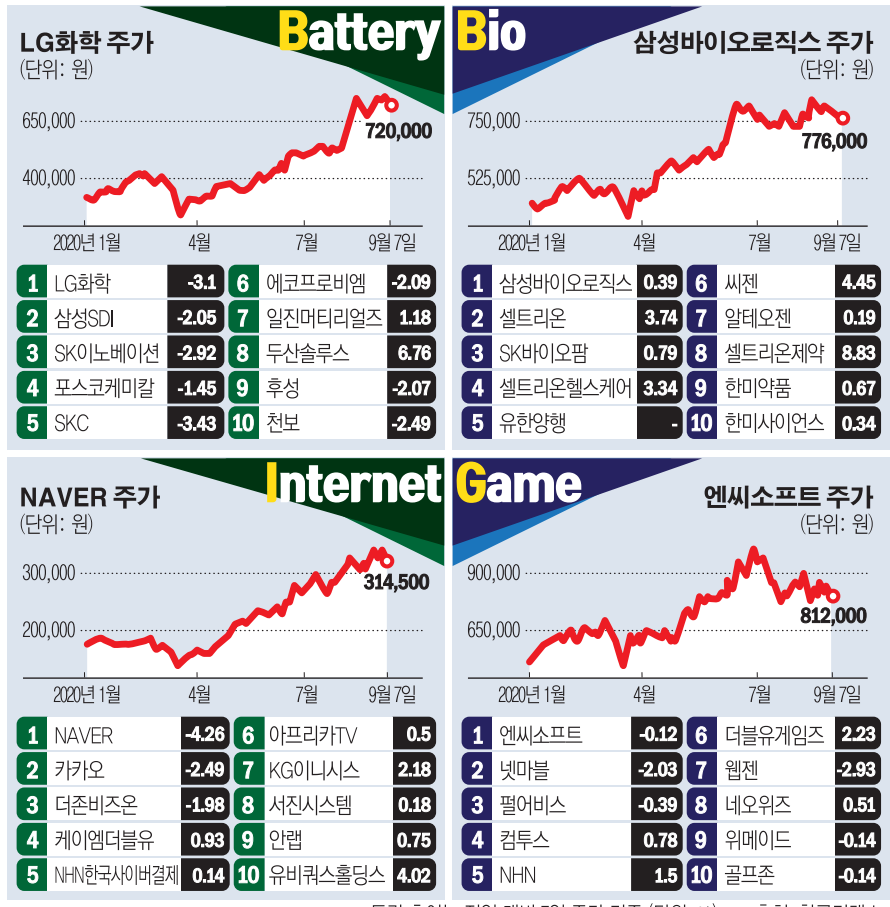
홍콩계 증권사인 CLSA도 흥행을 간접 인정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 데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뉴딜 펀드 조성을 통해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고 분석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펀드로 투자 이

익을 제공해 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동학개미’를 붙잡기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정부는 공모형 인프라펀드의 운용 기간을 5~7년으로 제시했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서민·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고채(현재 3년물 이 0.9%대)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돈이 묶이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2020년 7월 기준)는 연 0.94%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2020년 9월 7일 기준)은 각각 연 0.973%, 1.572%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CLSA는 한국거래소가 만든 뉴딜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혜택을 받지만, 뉴딜펀드 계획에서 소외된 기업들은 ‘패자(losers)’가 될 것이라고도 걱정했다. CLSA는 “이미 뜨거운 BBIG주에 기쁨을 끼얹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경악했다”며 “정부가 큰 거품을 조장하는 데 앞장선 꼴”이라고 꼬집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KRX ‘BBIG’ K-뉴딜지수 구성·상위 종목 등락 추이



그린뉴딜 호재… ‘중소형株 펀드’ 들쭉

1개월 수익률 6.25%… 뉴딜지수 편입 종목 중심 강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 펀드 투자자들이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액티브 중소형 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6.25%(이하 4일 기준)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1.80%)와 코스닥지수(2.92%) 상승률을 웃돈다.

3개월 수익률과 연초 이후 수익률은 각각 19.34%, 20.1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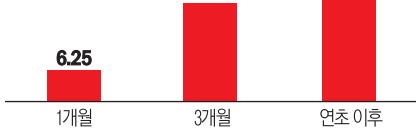
중소형주펀드는 주로 정보·기술(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쏘아 올린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그린 뉴딜’ 정책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개월 수익률(35.66%)이 가장 돋보인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 [주식]_A’는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과

중소형주 펀드 평균 수익률 추이

(단위: %, 4일 기준)

※ 출처: 에프앤가이드



풍력발전 타워 전문 제조업체인 씨에스윈드 등이 들어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형 뉴딜’ 수혜주로 손꼽힌다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기간 33.70% 수익률을 기록한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투자신탁 1(주식) ClassS’는 펀드 이름이 고배당이지만 최근 성장주에 주목, 언택트 기술혁신 관련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최근 두산퓨얼셀과 삼성SDI의 비중을 ‘톱5’까지 끌어올렸다. 두산퓨얼셀은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점유율 1위 업체이고, 삼성SDI는 대표적 2차전지주로 꼽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I 교육 중앙 속으로

CAU

산업을 넘어 일상을 바꾸고 있는 AI 기술
이제는 교육시스템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AI학과 신설과
인공지능 연구체계 구축을 통해
내일을 이끌어 갈 AI전문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CAU 중앙대학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혁신 전문인력을 양성

- 2021년 1학기, 학부과정에 '시학과'와 '첨단소재공학'과 신설
- 2020년 2학기, 교육대학원 '인공지능융합교육전공' 신설
- 2020년 2학기, 일반대학원 '시학과' 신설

혁신성장선도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교육 연구체계 구축

- 시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생명·문화·제조 분야에 특화된 산학연계 프로젝트 추진
-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로 학적·수업·성적·장학·편의시설 이용 등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DOU THE BEST

중앙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0.9.23(수) 10:00 ~ 9.28(월) 18:00

http://admission.cau.ac.kr 02)820-6393

경유세 인상 재추진… 생계형 운전자 부담 어떡하나

미세먼지 7.4% 줄고 세수 최대 10.2조 증대 효과
정유·車업계 타격 불가피… 기재부, 인상 결론 못내

경유세 인상이 재추진된다. 그러나 경유 차량은 트럭 등이 많아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과 가뜰이나 어려운 정유·자동차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에너지전환포럼은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를 현재 100대 8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평균 수준(100:93.6) △OECD의 평균을 이해하기 쉽게 조정한 수준(100:95) △생산원가를 고려한 수준(100:100)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준(100:120) 등 4개로 구분했다.

아울러 시나리오별로 목표 상대가격에 한 번에 도달하는 단일 조정 시나리오와 3개년에 걸쳐 목표 가격에 차례로 도달하는

점진 조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경유차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하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최대 7.4% 줄고 경유 세입은 2018년 대비 최대 10조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이런 추정치를 토대로 늘어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나 친환경 화물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해 의견을 모은 후 올해 안에 제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 경유세 인상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주장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현행 유류 세율을 OECD 세율과 일치시키거나 종량세인 개별소비세에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면서도 결론은 못 내고 있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경유 차량은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트럭·승합차가 많은 데다 경유세를 올리면 화물차 운전자의 반발도 무시 못한다. 실제로 6월 말 기준 국내 경유차는 995만2673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41.43%에 달한다. 또 경유차 중 300만 대 이상이 화물차로 대부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유세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 손실이 큰 정유업계도 경유세 인상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의 사업 절반이 등·경유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도 경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경유세가 인상되면 판매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할 거라면 자동차 업계가 정책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100대 기업, 2분기 해외매출 20% 급감”

전경련 “3대 주력 업종 부진
해외 진출 기업 지원책 필요”

지난해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해외매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분기보다 약 20% 급감한 146조30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결기준 공시자료를 분석해 7일 발표한 결과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후퇴로 100대 기업의 2분기 해외매출이 전년 대비 19.8%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이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면서 전년 대비 0.65% 증가한 170조4000억 원의 매출을 거둔 바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자동차·자동차 부품, 에너지·화학 등 3대 주력 업종 모두 해외 매출 부진을 겪었다.

전기·전자의 해외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등 언택트 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1% 감소한 71조 원을 기록했다. 자동차·자동차 부품은 폭스바겐, BMW, 벤츠, 아우디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생산라인 가동 중단, 세계수요 급감의 직격탄을 맞아 36.5% 급감했다. 에너지·화학 역시 지난 해부터 이어진 정제마진 약세, 국제유가 급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수요 급감으로 30.9% 감소했다.

해외매출 감소율을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부진에 따라 고수익 철강제품인 자동차 강판 수요가 급감하면서 해외 매출이 80.1%나 줄어든 철강업종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어 자동차·자동차 부품, 에너지·화학 등도 높은 해외매출 감소율을 보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인의 주요 교역·투자국에 대한 특별입국 확대,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대외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계자들이 시험 관련 자료들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86% 끝내 국가시험 ‘거부’

정부, 별도 규제조치 없기로
의협 “의·정 합의 훼손” 반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발해 투쟁해 온 의대생들이 끝내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대상 총 3172명 중 446명(14.1%)이 응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선 일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진행한다. 나머지 2726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신청자들에게 대해 별도의 규제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4일로 미뒀던 접수시한을 6일로 한 차례 더 미뤘고, 이 기간 재신청자들에게 대한 의사협회와 교수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시험일정을 11월 이후로 미룬 상황이어서다. 이미 원칙과 형평성을 여겨가며 마지막 기회를 준 만큼, 더 이상의 배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

시험은 의사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일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도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의협은 이날 복지부의 발표와 관련해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도 이날 성명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사회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이날 전체 전공의 대상의 간담회에서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고 밝혀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시 미접수 의대생 구제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수위를 다시 상향 조정될 수 있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은 “코로나로 실직 장기화, 고용유지 정책 필요”

코로나 노동시장 대응방안
“근로시간 단축 적극 시행 땀
장기실업 문제 일부 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실직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유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할 경우 실직 기간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상당수는 영구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미국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와 Barrer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들 중 78%는 일시해고 상태라고 응답한 데 반해, 31~56%는 영구 실업자로 남을 가능

성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업무 성격별로도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tcher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업무의 경우 생산성을 6~10% 감소시키는 반면, 창의적인 업무의 경우 생산성을 11~20% 상승시켰다. 또한 Battiston의 연구에선 근로자 간 소통이 중요한 직종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업무 자동화 흐름이 빨라지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반복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저숙련 일자리는 진입이 쉽기 때문에 상대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데 반해, 고숙련 일자리는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상대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확대 등 사후적 정책에 집중하는 미국식 모델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고용 유지 지원정책을 펴는 유럽식 모델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식 모델의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위촉시켜 실업기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데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담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1분기(1~3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주급(중간값)은 957달러인 데 반해, 평균 실업급여 수당은 978달러로 더 높았다.

김혜진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고용 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장기 실업 문제가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택근무 도입 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선 양적으로 고학력자의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질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내일까지 추석 철도승차권 비대면 예매

연휴 기간 창가쪽만 발매

한국철도(코레일)가 8일과 9일 이틀간 추석승차권을 예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발매하며 100%로 비대면으로 예매한다. 한국철도는 8일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9일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는 열차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 연휴에 운행하는 모든 열차를 대상으로 창가 좌석 승차권만 발매하기로 하고 시스템 조정과 테스트

작업을 위해 예매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시스템 조정 전에 이미 예매가 완료된 경로·장애인 대상 승차권은 창가 좌석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예매 기간에는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이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한 승차권은 9일 오후 3시부터 13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13일까지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혈세 먹는 공적연금’ 적자 예고에도 제도 개혁 하세월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재정수지 악화는 관리재정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적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성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적자 전환된다. 공무원연금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여서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7일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2020~2060년)에 따르면, 현재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올라 보험료 수입이 늘어 적자 전환 시기는 고작 2년 미뤄지게 된다. 그나마 사학연금은 현행 유지 시 2029년 적자로 전환되지만, 성장률이 오르면 2038년으로 전환이 9년 연장된다.

지금도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현행 유지 시 2060년 재정수지가 각각 -0.5%포인트(P), -0.08%P로 악화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연금제도 개혁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은 2018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복수의 개혁안이 마련됐으나, 국회로 공이 넘어간 뒤로는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 추계에서 복지부는 국민연

저출산·고령화에 가입자 감소

국민연금 재정 2057년 소진 전망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8%

국민연금의 2배... 통합 어려워

코로나·의사 파업 등 현안 산적

국회서 연금 개혁 거론조차 안돼

“개혁 미룰수록 미래세대 부담 커”

금 적립금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의사 파업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연금은 거론조차 안 된다”며 “연금 개혁이 미뤄져 현 세대가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미래에 연금을 타 간다면, 모자라는 지출은 보험료를 인상을 통해서든, 재정보전을 통해서든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제도 개혁을 미루면 제도를 개혁하는 시점에 필요 보험료율이 급격히 오른다. 흑자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가능하지만, 적자로 전환된 뒤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한번에 올려야 해서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단위: 억 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	26조6034	29조5116	31조6797	34조1118	37조7094	9.1%
공무원연금	17조4186	18조8987	19조9893	21조424	22조2813	6.3%
사학연금	3조8455	4조2096	4조5400	4조8977	5조2849	6.3%
군인연금	3조4657	3조5426	3조6829	3조8267	3조9749	8.3%
합계	51조3332	56조1626	59조8919	63조8786	69조2506	7.8%

※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다른 직역연금 개혁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미 공무원·사학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수익비(년 보험료 대비 연금수입)가 1.48배로 국민연금(1.50배)보다 낮아졌다.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공무원·사학연금만 개혁하면 수익비 역전은 역차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그나마 2015년 개혁에서 제외된 군인연금 정도만 단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논의도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

금(9%)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민간 대비 낮은 임금·퇴직급여 수준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띤다. 이는 2015년 개혁 전 공무원연금 수익비가 2.08배에 달했던 배경이다. 따라서 두 연금을 통합하려면 보험료를 조정과 함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

형평성도 문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적립금은 737조 원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다. 두 연금을 합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 이 경우, 적자 전환 시기도 앞당겨져 필요 보험료율은 더 오르게 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당장 2020년부터 두 배인 9%(기업 부담 포함 18%)로 올려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자가 더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약해져 저소득자가 손해를 보고,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적자성 국가채무’ 4년 후 900兆

이자 비용만 23兆 이상 추산 한국형 재정준칙 이달 중 마련

국민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4년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2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1327조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8%인 899조 5000억 원으로 900조 원에 육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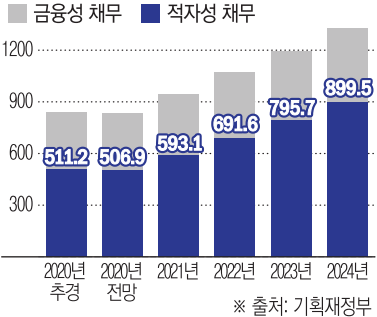
올해 적자성 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511조2000억 원이다. 국가채무(839조4000억 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 원, 2022년에는 국가채무 1070조3000억 원 중 64.6%인 691조6000억 원, 2023년 국가채무 1196조3000억 원 중 66.5%인 795조70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여건이 안 좋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 소요는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

적자성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 원)



지면서, 이를 메꾸기 위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 원, 내년 19조3000억 원, 2022년 21조 1000억 원, 2023년 22조4000억 원, 2024년에는 23조3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자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라고 부른다. 이는 이자지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 12조 7000억 원, 내년 15조7000억 원, 2022년 17조 원, 2023년 18조2000억 원, 2024년 19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되 성장률이 급락한 시기에는 확장적 재정을 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좋은 음악으로 당신의 귀가 행복해지고
좋은 음식으로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듯

앞으로의 투자는
당신의 삶을 채워주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968호(2020-08-24~2021-08-2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ccm

소 비 자 중 심 경 영
금융투자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ubuntu·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우분투’ 화두 던진 이낙연 “국민·與野 ‘원원원’ 정치하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제안

“여야 비슷한 정책 공동입법”

국민의힘 “협력할 준비돼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7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 비전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등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문을 연상시키는 면모를 보였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그는 우분투(ubuntu) 정신을 화두로 던지며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 공동체 정신을 일컫는 우분투란 아프리카 반투족 말로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뜻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책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복원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등 4·15 총선 공통공약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 성장정책을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입법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국유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지목하며 “방역을 조

롭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고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는데 마냥 지연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의 정신을 말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변화에 야당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로운 집권여당 대표다운 중후하고 울림 있는 연설이었다. 문재인 정부·여당의 종전 실패, 독선과 과감하게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 대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국민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4차 추가경정 예산 통과에 함께 노력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이 정말긴요한 곳에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가 많은 약속을 했다. 모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일들이다.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문 대통령 “전국민 지금 이전에도 재정상 어려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지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는 전 국민에 지급하지 못하는 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물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부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일환 기자 whan@

연간 가족돌봄휴가 최대 20일까지 사용

국회 ‘일·가정 양립’ 개정안 통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노동자도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노동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대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한도인 10일을 비롯해 연차휴가까지 모두 소진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휴가 기간을 연장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고용부는 코로나19가 타지자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 하루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가 각각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노동자가 늘자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 한부모는 25일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

기 경보가 발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4%였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추가 연장에 따른 비용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추가 비용 지원은 기존과 같은 하루 5만 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COVERSTORY 브라보! 음악에 차어스!

PART1 음악의 가치 음악은 늙지 않는다

PART2 종장년 음악문화 서베이 허드웨어는 변했어도 소프트웨어 감성은 그대로

PART3 추억 속 음악 찾기 숫자로 알아보는 추억의 앨범들

PART4 음악에 반하다 신의 음조원 선물로 듣는다

PART5 노래가 삶을 부를 때 인생 오선지 위 음표처럼 뛰친 그때 그 노래

PART6 음악 감상실을 가다 LP 한 장 들고 떠나는 감상여행

더불어 숲
내 마음에 구름
걸리면 부처가 보인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나만의 낙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안녕, 시골아, 드디어 내가 너에게 왔노래
그때엔 그렇게 혼란한 인사일을 숲을 거닐어
없었다. 경기도 화성사에서 사업을 하다 귀촌한
김영희씨와 씨. 그의 귀는 얼른 귀였나? 그는
“농지매 잡이매 가져 쓸 수 있으니 몸만 오락는
자연의 품안에서 편안함을 받고 싶어서 달려
내려간 참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상황이
영 달랐다.

생생 부동산 현장 비규제지역에 가려진 ‘알짜’ 호재들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한 지역이 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해 아직 안전하다, 투자할 만하다 라는 인식이
차라 짊어지면서 수요가 몰린 김포한강신도시다. 그렇다면
다른 호재는 없는 걸까. 김포한강신도시의 잠재된
미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왔다.

엄마가 엄마에게
면역력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육류와 버섯,
녹황색 채소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농사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늦추면 더 받는
‘볼륨한’ 국민연금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It's time to act

친환경을 실천하는
잉크 절약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을 주도하는 SK이노베이션이
광고에서도 친환경에 도전합니다

지구의 안녕을 위해

Hi! Innovation SK 루브리컨츠



QR코드를 찍어
SK이노베이션의 더 많은
친환경 혁신들을 만나세요

이 광고는 자사 일반 인쇄광고 대비
잉크를 약 90% 이상 절약하여 폐잉크용기 발생을 억제하고
잉크 제작 시 발생하는 CO₂를 줄여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조건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업별별 코로나 백신		다른 백신과 기타 제품	
구분	보관 온도	구분	보관 온도
아스트라제네카	-10~0℃	독감 백신	-10~0℃
존슨&존슨(J&J)	-10~0℃	수두,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50~-20℃ (-50℃는 남극 평균 기온)
모더나	-20℃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스테이크 선택 시	-80℃
화이자	-80~-60℃		

백신 개발 ‘뉴 미션’ “냉동고를 사수하라”

‘초저온 필수’ 보관·이동 고심
병원, 전용 저장고 구매 고려
물류회사 ‘냉동고 농장’ 건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레이스가 냉동고 쟁탈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들이 심각한 난관에 직면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바로 냉동고 확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계약을 미리 싹쓸이하면서 드넓은 미국 전역으로 3억 명 분의 백신을 안전하게 배달하는 게 급선무다.

WSJ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현재 백신 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시험 3상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최대 영하 80℃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과 냉동 스테이크를 배송할 때와 비슷한 성능의 특수 냉동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와 화이자가 각각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은 mRNA라는 새로운 유전자 기반 기술에 의존하는 데,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하는 백신은 영하 60~80℃의 초저온에서 저장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만한 특수 냉동고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서 예방접종은 병원과 약국, 진료소 등에서 이뤄질 예정인데, 이들 장소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할만한 특수 냉동고가 거의 없다.

이에 미국 공중보건 당국과 제약업체, 운송업체는 협업으로 코로나 백신을 저

온에 저장할 수 있는 물류 네트워크 ‘콜드 체인(Cold Chain)’ 구축에 분주하다. 일단 병원은 장비와 보관 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백신 전용 냉동고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운송업체와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이동식 냉동고를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인 ‘냉동고 농장’을 건설 중이다.

한 제약업체는 백신을 최소 열흘간 차갑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특별 용기를 만들었다. 백신 업체들은 높은 기온에서도 접점 장소로 안전하게 백신을 보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백신은 유제품이나 육류와 비슷하게 일정한 온도로 보관돼야 화학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독감과 수두 등 기존 전염병 예방 백신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저온이나 초저온에서 보관돼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이런 백신들을 어떻게 적절한 온도로 유지한 채 일선 병원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전례 없는 속도로 개발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상세한 정보를 일선에서 아직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저온에서 보관해도 사용 기간이 짧다. 초저온으로 보관하면서도 대량으로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망과 저장 시스템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내 4000개 이상의 병원에 의료용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프리미어의 차유파월 부사장은 “3억 명의 미국 성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물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며 “가정에서 1시간 거리의 장소까지 어떻게 백신을 보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男 중심’ 펀드 매니저… 운용 성적은 ‘女 승리’

골드만 “기술주 선택이 승패 갈라”
496개 펀드 중 女 관리는 14개뿐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월가에서 남성 매니저보다 여성 매니저의 펀드 운용 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월가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을 맞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남녀 펀드 매니저의 운용 성적을 비교했다. 벤치마크와 비교한 결과, 여성 매니저가 3분의 1 이상 되는 여성 관리 펀드 팀은 올해 마이너스(-) 57베이시스포인트(1bp=0.01%p)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남성 매니저로만 구성된 팀이 운용한 펀드는 평균 수익률이 -164bp로 훨씬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미국 주식 투자 전략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변동장세에서 여성으로 구성된 팀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팀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코스틴은 정보·기술(IT)과 금융 부문에 대한 펀드의 포지셔닝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고 분석했다. 여성 관리 펀드는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테슬라 등 기술주를 더 많이 보유한 반면 남성 관리 펀드는 버크셔해서웨이와 웰스파고 등 금융 부문의 투자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다. 올해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유독 강세를 보였다.

다른 회사에서도 여성 펀드 매니저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JP모건체이스의 수전 바오는 월가의 대표적인 여성 펀드 매니저다. 그녀가 12년간 운용해온 13억 달러(약 1조5435억 원) 규모의 텍스

어웨이어쿼티펀드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이 운용한 펀드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다. 이 펀드 수익률은 올해 들어 벤치마크를 27%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또 다른 유명 펀드 매니저 커스티 김슨이 팀원으로 있는 베일리리포드의 US아퀴티그로스펀드는 여성 관리 펀드 1위에 올랐다. 이 펀드는 올해 들어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55%포인트 웃돌았다.

여성들의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투자 업계에서 여성 매니저 비중은 여전히 작다. 골드만삭스가 이번 조사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총자산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대형주식펀드 496개 중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이 운용하는 펀드는 14개에 불과했다. 49개 펀드는 여성 매니저가 3분의 1 이상 되는 여성 관리 펀드로 분류했고, 남성 매니저로만 구성된 펀드는 380개에 달했다.

최혜림 기자 rog@



‘광복 홍콩’… 끝나지 않은 싸움

홍콩에서 6일 열릴 예정이던 입법회 의원 선거를 캐리 램 행정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년 연기한 데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애초 경찰은 이날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수백 명의 시민들은 경찰을 피해 소규모로 산발적 시위를 벌이며 반정부 시위대의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쳤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따라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 자체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 체류탄을 발사했고 최소 30명을 체포했다. 야권과 민주화 진영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홍콩/AFP연합뉴스

이 와중에… 英 ‘노딜 브렉시트’ 으름장

존슨 총리 “EU와 10월 15일 이전 타결 못하면 끝”… 현실화면 세계경제 추가 타격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미래관계 협상이 뼈격대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휘청이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은 EU와의 미래관계 8차 협상을 앞두고 ‘노딜(no deal)’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은 올해 1월 말 이미 EU를 탈퇴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 기간을 감안해 연말까지 브렉시트 적용을 미룬 상태다.

양측은 지금까지 7차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8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8차 협상을 재개한다. 그러나 FTA를 놓고 영국과 EU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는 영국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EU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면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EU가 어렵



과 기업보조금 문제에서 영국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입장은 강경하다. 데이비드 프로스트 브렉시트 관련 영국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EU가 영국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영국은 EU의 ‘예속국가(client state)’가 될 생각이 없다. 영국 법률에 대한 통제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이른바 ‘노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보리스 존슨(사진) 영국 총리도 “만약

10월 15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EU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놔다. 양측이 이번 8차 협상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10월 15~16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EU는 연말까지 비준 절차를 마치기 위해 늦어도 10월 말까지 영국과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관세 부담에 따른 무역 축소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9일 브렉시트 협정에서 중요한 부분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새로운 법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시장법안’ 항목의 국고 보조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세관 관련 분야가 대상으로, EU와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영 기자 0jung2@

IOC “도쿄올림픽, 내년 예정대로 개최”

“코로나 불문 강행…재건 올림픽 될 것”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관계 없이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강행할 방침이다.

존 코츠 IOC 부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도쿄올림픽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예정대로 내년 7월 23일 개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FP통신이 보도했다.

코츠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호주 IOC 위원장을 맡아왔으며 현재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을 감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이날 AF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를 정복한 대회가 될 것”이라며 “올림픽은 세계 대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취소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재건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터널 끝에 빛이 보이듯 코로나19를 정

복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은 원래 올해 개최 예정이었으나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탓에 내년 7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일본 국경은 여전히 외국인에게 거의 폐쇄돼 있으며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불확실해 올림픽이 또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4명 중 1명만이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다시 연기하거나 취소를 지지하는 등 올림픽에 대한 일본인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고 AFP는 전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올림픽을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코츠 부위원장도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1년 후로 미뤘지만, 아무도 지휘봉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회 중 가장 잘 준비된 대회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사 기준〉

P2P 80%가 자본잠식… 제도권 진입 무더기 탈락 예고

자본기준 충족 업체 8곳 그쳐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사 가운데 '10곳 중 8곳'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들이 모여 만든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 P2P협회 소속 회사들마저도 제도권 진입을 위한 '자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과 함께 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접수하고, 정식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P2P업자 인가 조건을 통과한 업체들은 정식 금융업체로 등록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대부업체로 간판을 갈아달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 P2P업체가 문을 닫으면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P2P금융업 등록 요건인 '자본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46개사 가운데 8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로, 몇 곳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업체도 있었다. 여기에 P2P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도 포함돼 금융당국의 P2P금융 공식 등록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P2P협회 회원사도 못 믿어" = 금융당국은 올 7월 기준 '대부업업'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사보고서 제출 30% 불과

전체 237곳 중 78곳만 '적정의견' 응답하지 않은 업체도 105곳 달해

증자 없으면 P2P금융 등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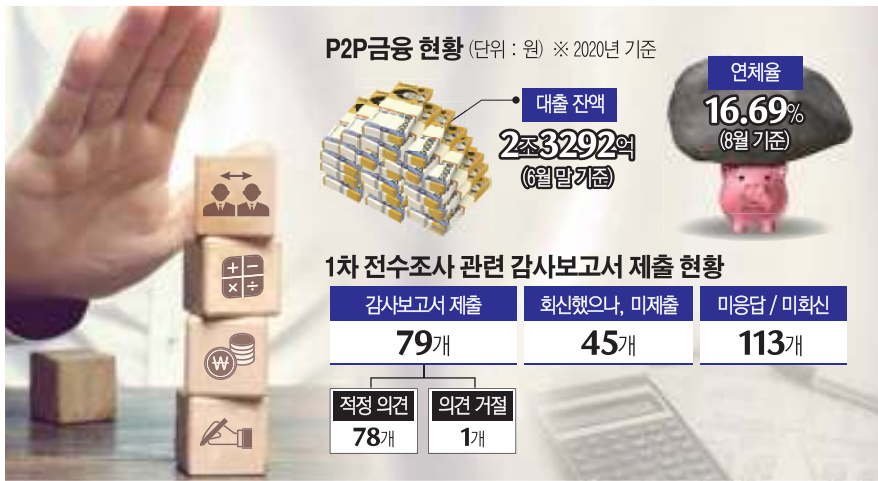
연체율 상승에 투자 유치 난항

내년 8월까지 등록 못하면 처벌

투자들 자금 회수 우려 목소리

(P2P법) 시행으로 난립한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은 현행 P2P금융의 운영 근거가 되는 대부업법상에서의 등록여건인 '영업실적'과 '소재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두 가지는 P2P금융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전체 237개사 중 79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한 곳은 의견거절 보고서를 제출했다. 영업실적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 업체가 26개, 아예 응답하지 않은 곳도 105개에 달했다. 그사이에 문을 닫은 업체도 다수 나왔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10월까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늘렸다. 이후에도 미제출, 미응답한 업체에 대해서 현장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기한은 늘었지만, 추가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P2P협회 회원사도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사를 대상으로 P2P법에 따른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도 아주 소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란 첫 단계를 넘어도 자본금 규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P2P연계대부업체로 공식 등록하기 위해선 준법감시인 선임 및 자본금 규정이 있는데, 그중 '자본잠식' 여부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마다 자본금 유지 규정은 다르지만, 자본잠식인 업체는 (P2P연계대부업) 등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본잠식, 증자 없으면 등록 어려워" = 감사보고서가 파악된 업체만 보더라도 대다수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초기에 받은

투자금을 갈아 먹는 상황이다. 따라서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위해선 증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P2P금융이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잡음이 일면서 P2P업체가 신규 투자금을 받기 어려운 처지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투자처를 통해 증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준법감시인 선임도 자금이 없어서 선임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P2P연계대부업 등록경과기간을 내년 8월 26일로 못 박았다. 제도가 들어선 이후에도 등록하지 못하면 '미등록' 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업계에선 P2P업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당분간은 대부업체로 등록해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상 미등록 업체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의무는 부과되지



P2P 금융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1, 2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사기, 횡령, 연체율 급상승 등이 잇따르면서 신뢰에 타격을 받았다.

만, 신규 투자가 막힌 다음이라 상황 가능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P2P금융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조사한 P2P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기준으로 대출잔액은 2조3292억 원에 달한다. 대출잔액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연체율이 점차 급증하고 있어 당국에서도 투자를 유의해달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또 일부 업체가 P2P법 시행 전에 갑작스럽게 문을 닫거나 이자 상황이 어렵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등록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 시점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투자금은 줄어들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인데 최근 업황이 좋지 않아 증자가 어려워 아마도 더 많은 업체가 등록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4년간 26兆… 신한금융, 한국판 뉴딜 '통 큰' 지원군

그룹사 CEO 화상회의 개최

'신한 네오 프로젝트' 추진안 논의
조용병 회장 "큰 도약의 기회"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한국판 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4년간 약 26조 원을 투입한다. 그룹 내부의 '금융의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신한 네오 프로젝트(N.E.O Project)'를 통해서다.

조 회장은 7일 그룹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CEO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논의했다.

조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범 국가적 사업이고, 이를 선점하는 것이 신한에게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융의 뉴딜인 신한 네오프로젝트의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그룹사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네오 프로젝트를 발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7일 신한금융지주 본점 회의실에서 그룹사 CEO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했다. '신한 네오프로젝트는 △신 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 성장생태계 조성 등 3가지다.

금융지원 부분에서 신한금융은 뉴딜금융 지원을 위해 4년간 약 26조 원을 투입한다. 지원 내용은 혁신대출 16조 원, 혁신투자 1조 원, 녹색금융 투자·대출 9조 원 등이다. 민간자금을 펀드형태로 만들어 신성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간접 공급 방식과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신한은행은 유망 기술분야 기업을 중

심으로 TCB(기술신용평가)·IP(지식재산권)·동산담보대출의 지원구도를 확대한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상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뉴딜 관련 특화 상품을 만들어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바이오·첨단소재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GIB(글로벌 투자금융) 사업부문은 데이터센터, 노후학교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해상풍력,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5대 중점 추진 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봉화 오미산풍력발전(1600억 원), 전남 영광 풍력발전(1600억 원), 태백시 풍력발전(500억 원), 임자도 태양광발전(1500억 원), 파주에코그린 에너지(1400억 원), 전북 산업단지 연료전지발전(1000억 원)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각 그룹사별로 AI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AI 기반 지능형 상담서비스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은 유망스타트업 발굴 등 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한 트리플케이(Triple-K)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서울, 인천, 대전에 스타트업 파크를 운영 및 설립 중이다. 추후 부산, 광주, 제주까지 조성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국의 스타트업 파크에는 뉴딜 사업의 기초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입주시키고, 입주기업에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원금 손실 줄이고 납입료 보증" 하나생명, ELS 변액보험 출시

하나생명은 ELS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손실과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보험료를 보증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줄인 (무)ELS의 정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을 출시해 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ELS의 정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 ELS 상환시 ELS 최초투자일로부터 계약자적립금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10년 이내 일 경우에는 80%를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낙(No Knock)인 스텝다운형 월수익 확정식 ELS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성을 더하고, 유연한 ELS 투자전략으로 수익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과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ELS 최초투자일로부터 10년 경과후 최초 도래하는 ELS 상환일(상환평가일+2영업일)에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100% 미만일 경우 보험사는 원금을 채워주고 ELS 투자는 종료되며 보증 기능도 소멸한다.

(무)ELS의 정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 주가지수ELS보증형, 국내주식형, 글로벌채권형, AI글로벌형 등 다양한 펀드로 운용되며, ELS에 투자된 자금은 조 기상한 및 만기상환시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손님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농협銀, 비대면 운전자상해보험 업계 첫 출시

NH농협은행은 언택트 금융시대에 맞춰 스마트뱅킹 전용 상품 'NH운전자상해보험'을 7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운전자상해보험'은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가입자의 교통상해사고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에

필요한 △벌금비용(30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 원) △변호사선임비용(500만 원)을 약 2만 원의 보험료로 1년간 보장 받을 수 있다.

고객 중심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가입 연령을 만19~75세로 확대했으며,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가입과 NH포인트를 사용

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플랫폼을 지난해 12월 19일 오픈했으며, 현재 저축(변액)보험 5종, 연금보험 6종, 보장성보험 18종 등 총 29종의 상품을 디지털보험으로 제공하고 있다.

손병환 은행장은 "언택트 금융시대에 맞춰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편리하고 유익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손병환 NH농협은행장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직접 NH운전자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삼성 ‘화웨이 빈자리’ 5G 장비 선점 나섰다

이재용 부회장이 짝은 새 먹거리
에릭슨·노키아와 ‘3파전’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인도
중국 장비 배제에 영토 확장

삼성전자가 7일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미국 버라이즌에서 8조 원 규모의 5G(5세대) 통신 장비를 수주하면서 글로벌 5G 영토 확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 주파수 경매를 완료했다. CBRS는 미국의 군사용 주파수인 3.5GHz를 일반 기업들이 5G 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사업이다.

그간 주파수 부족으로 5G 망을 확대하지 못했던 버라이즌과 AT&T는 주파수 경매 완료를 계기로 5G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다른 미국 통신사를 역시 4분기부터 5G에 대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관

측된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5G 투자 확대 기조에서 혜택을 톡톡히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통신사들이 세계 1위 통신장비사인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릭슨, 노키아와 함께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에 5G 장비를 나눠서 공급하는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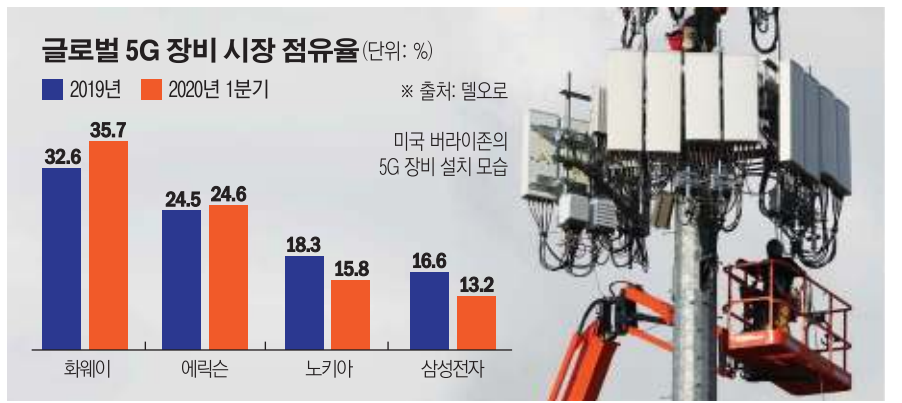
대규모 수주로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급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의 기술, 보안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을 내세워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5G 장비 영토를 넓히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자국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웨이의 빈자리 가운데 어느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5G 장비 수주 계약을 한 캐나다 이동사 텔러스는 기존에 화웨이 장비를 100% 사용하고 있었으나,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면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장비 공급사로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인도 정부도 5G 투자 시 화웨이, ZTE, 텐센트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통신 장비 시장 중 한 곳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두 차례 직접 찾아 5G 사업 현황을 점검하면서 공을 들여온 곳이기도 하다.

시장조사기관 텔오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13.2%로, 화웨이(35.7%), 에릭슨(24.6%), 노키아(15.8%)에 이어 4위다.

화웨이는 막대한 자국 5G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미국·



유럽이 잇따라 등을 돌리면서 향후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삼성전자 IM부문(IT·모바일)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폰이 매출과 수익 면에서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5G 장비 사업이 새 성장동력으로 본격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도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5G 통신 장비 사업을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꼽고 본격적인 투자 확

대와 기술 개발에 나서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수원사업장에 있는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에 5G 장비를 대규모 공급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LG화학, 안전사고 제로화…고위험 공정 590건 개선

고강도 안전기준 전 세계 적용
‘M-프로젝트’ 내년까지 완료
올해만 810억 규모 추가 투자

LG화학이 전 세계 사업장에 고강도 환경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M-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환경 안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위기 의식에 중대한 환경안전사고 ‘제로(0)’ 목표로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관리 기준을 재정립한 것이다.

LG화학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안전 기준을 재정립하고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환경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회사는 내년까지 중대 환경 안



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사내환경안전및공정기술전문가,외부전문기관으로 구성된 ‘M-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M-프로젝트의 M은 ‘목련(Magnolia)’을 의미해 목련이 개화하는 봄에 발생한 사고를 잊지 말고 모든 환경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해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전 세계 사업장에 완벽히 정착시키겠다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담겨있다.

LG화학은 M-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안전 규정 체계 재정립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운영 △사고감지·예방 체계 구축 등의 주요 실행 과제를 2021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전 세계 37개 사업장(국내 15개, 해외 22개)을 대상으로 고위험 공정 및 설비에 대해 우선으로 긴급 진단을 완료하고 총 590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또 개선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올해에만 총 810억 원 규모의 환경 안전 투자를 추가로 집행 중이다. 현재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정밀 진단의 경우 전 세계 사업장 진단을 연내 모두 마칠 계획이다.

M-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신학철(사진) LG화학 부회장은 “최근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안전하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준비해 온 고강도 환경 안전 정책을 전 세계 사업장에 체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차 ‘월드랠리챔피언십’ 4차 대회 우승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4~6일 개최된 ‘2020 월드랠리챔피언십(WRC)’ 4차 대회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 소속 오토 타넨(Ott Tänak) 선수가 우승을, 팀 동료 크레이그 브린(Craig Green)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다.현대차는 이번 우승으로 제조사 종합 포인트를 43점 더해 1위 토요타 월드랠리팀과의 격차를 기존 21점에서 5점 차까지 좁히며 2위 자리를 지켰다.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제철, 충격에 강한 ‘울트렉스’ 브랜드 출시

현대제철은 강도와 성형성이 우수한 고강도 강 브랜드 ‘울트렉스(ULTREX)’를 시장에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울트렉스는 ‘외부 충격에 강한 단단한 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울트렉스는 충격에 강한 초고장력 강으로 자동차 내외관, 구조재가

요구하는 특성에 최적화된 핵심소재이다.

울트렉스에 포함된 강종은 현재 개발 중인 3세대 강판 4종을 포함해 센터필러, 프론트 범퍼빔 등 자동차 주요 부위에 쓰이는 31종이 있다.

울트렉스는 탄소함량을 최적 비율로 조절하고 철저한 냉각 제어 공정을 거침으로

써 강도는 강하면서도 성형성이 우수하다. 자동차 소재에 적용할 경우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어 다양한 구조재와 부품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향후 수소와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 자동차의 소재 공급 및 플랫폼 개발에 참여해 모빌리티 소재 산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항공사, 추석에도 보릿고개

코로나로 고향 방문 자제
국내선 예약률 겨우 절반

항공사들의 대목 중 하나인 추석이 3주 앞두고 다가왔지만 국내선 예약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조성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예약률은 평균 50% 수준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의 이 기간 국내선 예약률은 60% 수준, 티웨이항공은 60% 초반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부산의 국내선 예약률은 노선에 따라 적게는 25%, 많게는 약 40% 정도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에어서울 등 다른 항공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는 여객 수요가 많이 물리는 성수기로 꼽힌다. 항공사들은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 등이 포함된 3분기를 최대 성수기로 보고 있다.

8월 첫째 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 어났던 국내선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꺾였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국내선 이용객 수는 64만7324명으로 집계됐다. 8월 넷째 주(8월 24일~30일) 87만7862명, 8월 셋째 주(8월 17~23일) 133만8898명에서 내리막을 타고 있다.

이날 정부는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추후에도 항공업계가 연휴 기간 수요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LG 건조기 3대 중 1대 ‘세탁기 일체형’

5월 이후 국내 판매량 집계

LG전자가 4월 출시한 원바디 세탁건조기 ‘트롬 워시타워’가 세탁과 건조를 하나의 제품에서 끝내는 새로운 의류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LG전자는 트롬 워시타워 판매량이 출시 직후인 5월부터 최근까지 LG전자 건조기 국내 판매량 중 30%를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LG 건조기를 구입한 고객 3명 중 1명이 워시타워를 선택한 셈이다.

최근 아파트의 주방과 발코니가 확장되며 세탁과 건조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면서 일체형 원바디 디자인인 워시타워의 뛰어난 공간 효율성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별도의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을 넣고 빼거나 필터를 편리하게 관리하는 것도 장점이다. 워시타워는 같은 용량의 21kg 드럼세탁기와 16kg 건조기를 위아래로 설치할 때보다 높이가 약 87mm 낮다.

위생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서 스팀 기능도 LG 건조기의 성장세에 기여하고 있다. LG전자 건조기 국내 판매량 가운데 트루스팀을 사용하는 제품 비중은 8월 기준 80% 이상이다. 스팀 기능을 탑재한 건조기가 처음 출시된 3월 30% 수준이었지만 6월부터는 줄곧 80%를 넘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kt | NETFLIX

KT와 넷플릭스의 초특급 만남

—— 당신의 일상에 쓰임새 있게 ——



오직 KT에서만, 넷플릭스 3개월 무제한!

KT 5G 고객

대상 : 슈퍼플랜 스페셜 Plus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에 한함

기간 : 2020.8.14 ~ 9.25

혜택 : 넷플릭스 스탠다드 3개월 무제한

올레 tv 고객

대상 :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이상 + tv에센스 이상 + 기가지니 2' 신규 결합 가입(3년 약정) 고객에 한함(olleh tv live 상품 및 기본회선 한정)

가입기간 : 2020.8.3 ~ 9.30 접수 후, 2020.10.7 까지 개통한 고객

혜택 : 넷플릭스 프리미엄 3개월 무제한

※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넷플릭스 유료 자동 연장되며, 프로모션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이용약관 참조

삼성, 하반기 공채 문 열었다

14일까지 접수, 10~11월 시험
7000~8000명 규모 모집
‘3년 4만명 채용’ 목표달성 무난
SK·CJ·포스코 등도 신입 공채

삼성이 7일 채용 공고를 내고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삼성 계열사들은 이날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2020년 하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삼성은 이날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10~11월 중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중에 면접을 치르고 12월에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GSAT 일정은 1차 직무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후 공

지된다. 삼성은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하반기 공채에서도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다.

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예년 수준인 7000~8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삼성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삼성은 2018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까지 3개년 목표치(약 4만 명)의 80% 이상에 달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규모 투자 발표 전에 채용계

획에서 설정한 3년간 고용 예상치(2만~2만5000명)보다 무려 2만 명가량 많은 것이다.

한편 다른 주요 그룹들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간다. SK그룹은 14~25일 원서를 접수한 후 10월 중순 이후에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SK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상반기에 오프라인으로 치렀던 필기시험을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면접은 11~12월 초, 입사는 내년 1월 1일자로 예정돼 있다.

CJ그룹은 이날부터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ENM, CJ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 등 6개 계열사에서 하반기 공채를 진행한다. 지난달 31일부터 하반기 공채시험을 시작한 포스코그룹은 오는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BMW '530마력 괴물 SUV' 뉴 X7 M 출시 BMW 코리아가 고성능 SAV(스포츠 액티비티 차량)인 '뉴 X7 M50i'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뉴 X7 M50i는 뉴 X7의 가솔린 M 퍼포먼스 모델로, 4.4리터 직렬 8기통 가솔린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530마력, 최대토크 76.5kg·m의 강력한 힘을 낸다. 또한 3105mm에 달하는 축간거리(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춰 6인승으로 제공된다. 판매가격은 1억6560만 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가격)이다. 사진제공 BMW

퓨얼셀·로보틱스 인재 영입 두산, 대표 계열사로 육성

연료전지·협동로봇 부문 집중
인프라코어 등 매각 계열사 대체

두산그룹이 계열사인 두산퓨얼셀과 두산로보틱스 인재 영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위기 극복을 위해 두산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매각되는 상황인 만큼 두 계열사에 집중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그룹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퓨얼셀의 아메리카 법인은 최근 일주일간(8월 31일~9월 6일) 총 7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냈다. 모집분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자 △디자인 엔지니어링 관리자 △현장 서비스 기술자 등이다.

협동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로보틱스도 이달 20일까지 하반기 경력직 채용에 나서는 등 인재 확보에 나섰다. 모집 인제는 기술개발(로봇 제어기 시스템 설계 및 시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과 제품 마케팅 등 6개 부문에 걸쳐있다.

두산그룹은 인재 영입을 통해 두산퓨얼셀·두산로보틱스를 미래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 키울 계획이다.

두산은 최근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알짜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있다.

이달 4일에는 두산솔루션을 사모펀드인 스카이라이프인베스트먼트에 약 7000억 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모트를 사업부 또한 소시스-웰투시 컨소시엄에 4530억 원에 팔았다.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마저 시장에 내놓았다. 크레디트스위스를 매각 주관사로 내세워 22일 예비입찰을 받는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알짜 자회사인 두산바캬트 매각될 수 있다고 업계는 예상한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바캬트가 매각된다면 두산그룹의 자산 규모는 30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줄어든다.

주요 계열사가 빠져나감에도 두산퓨얼셀, 두산로보틱스의 잠재성이 높다는 점은 두산에 불행 중 다행이다.

두산퓨얼셀은 올해 2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 126억 원을 달성, 전 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연이은 수주곡선을 확보한 데 따른 결과다.

두산퓨얼셀의 성장 속도는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의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두산로보틱스도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 독일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오토매티카에서 100여 개 업체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올해 7월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차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마저 매각이 되는 만큼 두산퓨얼셀, 두산로보틱스 등 남은 계열사의 성장 여부에 따라 두산그룹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이스타항공, 직원 절반 550명 정리하고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무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스타항공이 약 550명의 정리하고 대상자를 확정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사내 이메일을 통해 1차 정리하고 대상자를 통보했다. 정리하고 대상자 규모는 5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직원 수(1100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앞서 희망퇴직 신청을 한 91명을 포함하면 641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됐다. 향후 항공기 운항 재개 시 필요한 운항직(기장, 부기장), 운항관리사, 일반직, 정비사, 객실 일부 직원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스타항공 측은 “재고용을 전제로 인력

감축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제선 운항 시점에서 재입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향후 항공기 증가 및 국제선 재운항을 고려하면 현재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인수 후 인원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말 우선협상인수기업을 선정하고, 내달 중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대형펀드와 기업 3~4곳이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 측에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능력 쇼핑

실력 300% UP ▲
개발 200% UP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매출 ‘뚝’... 소상공인 절반 “폐업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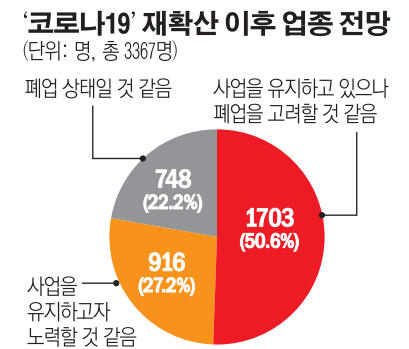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다시 확산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액이 90% 이상 감소하고, 절반 이상은 조만간 폐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96.4%에 달했다.

“사업 유지하겠다” 27% 그쳐
60% “매출 90% 이상 감소”
“임대료, 가장 큰 비용 부담”
87% “2차 지원금 매우 필요”

세부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이란 답변이 87%, ‘다소 부정적’이란 답변이 9.4%로 각각 조사됐다. 이어 보통(1.9%), 매우 긍정적(1%), 다소 긍정적(0.6%) 등이다.

코로나19가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묻자 60%가 ‘9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80% 이상(16.2%)’, ‘-50% 이상(15.3%)’, ‘-30% 이상(5.6%)’, ‘-



10% 이상(2.5%)’ 등 감소했던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증가했다’는 답변은 0.1%에 불과했다.

업종의 피해액 추정을 묻는 물음에는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이 31.3%(105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24.5%)’, ‘100

0만 원 이상(19.2%)’, ‘2000만 원 이상(9.7%)’ 등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놴. 총 1703명(50.6%)이 이 같이 답하면서다. 또한 ‘사업은 폐업상태일 것 같음(22.2%)’이란 답변도 대거 나왔다. 반면 사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 같은 응답은 27.2%로 집계됐다.

소상공인들은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중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경영비용 부담에 대해 묻자 ‘임대료’가 69.9%로 가장 많았고 대출이자(11.8%), 인건비(8%), 세금(5.4%), 공과금(2.8%) 순으로 집계되면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87.3%에 달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68.5%)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향후 다소 호전(71.7%)되거나 매우 호전(13.8%)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야 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가 최우선순위에 꼽혔다. 총 1196명(35.4%)의 소상공인이 이를 요구하면서다. 또한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26.1%), 임대료 지원(22.3%),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실시(7.7%),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감면(4.6%) 등을 꼽는 이들도 나왔다.

이다원 기자 leedw@

IT스타트업계 ‘개발자 모시기’ 파격 대우

제3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기존연봉 1.5배·1억 스톡옵션
‘부릉’ 5000만원 특별 보너스
인재 추천 보상금 제도 추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스타트업계는 개발자 채용에 분주한 모습이다.

7일 IT 기반 스타트업계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IT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인 개발자 직군에 크게 투자하는 모양새다.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테크 직군 경력직 개발자를 공개 채용한다. 채용 대상은 △안드로이드, 프론트엔드, 백엔드 자바 엔지니어 등 ‘엔지니어링(Engineering)’ 분야 △AI 데이터 사이언스, AI/ML 엔지니어 등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분야로 총 16개 직무다. 엔지니어링 매니저(개발 팀장), 안드로이드 개발 등 총 6개 직무의 합격자들에게는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일회성 특별 보너스(사이닝 보너스)가 지급된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칭)

설립을 준비하는 토스혁신준비법인도 이날 핵심 금융IT 시스템을 구축할 경력 개발자를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직무는 아키텍트, 대외연계, 고객 시스템,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여신, 수신, 내부신용조회(CSS), 전자금융, 카드, 회계관리 등 코어뱅킹 10개 분야 개발자다. 입사자에게는 이전 직장 연봉의 최대 1.5배, 1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한다.

여성 쇼핑 앱 ‘지크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은 수시 채용으로 연내 직원을 250명 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임직원 숫자는 70여 명이었으며 현재는 약 200명으로 확대됐다. 올해 신규 입사한 개발 인력은 약 80명이며, 올해 추가로 채용할 개발 인력은 약 50명이다.

크로키닷컴은 올해까지 신규 입사하는

경력 지원자들의 연봉을 전 직장 대비 30% 일괄 인상해 주기로 했다. 또 6개월 이상 근무자면 전세자금 대출 시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혹은 월세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패션테크 기업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에 ‘개발자 100명 채용’을 목표로 내걸었고, 내달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날 브랜드는 9월부터 ‘조직 2.0’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브랜드는 7월부터 9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6명의 리더급 인사를 영입했다. 브랜드 관계자는 “IT 및 스타트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브랜드에 인재를 추천하고 100만 원의 채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명예 리크루터’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내달 개발자 인턴십 프로그램 ‘우아한테크코스’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우아한테크코스’는 우아한형제들의 전문 개발자 양성 교육 과정으로 IT 기업의 실무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실력을 갖춘 개발자를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2월 처음 만들어졌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해 수료자의 절반 가량이 우아한형제들에 입사했다. 또 수료자의 일부는 여타 유명 스타트업에 입사하기도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내 카카오 데이터센터 유치 협약식
2020.9.7 오후 1시 30분 / 경기도청 신관2층 상형실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리 운영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7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화섭(왼쪽부터) 안산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우승 한양대 총장이 양해각서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카카오

네이버웹툰, 글로벌 MAU 6700만 명 돌파

〈월간 순 사용자〉

한 달 만에 200만 명 증가

네이버웹툰이 글로벌 MAU(월간 순 사용자) 6700만 명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 7월 6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한 달 만에 2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사용자 증가는 유료 거래액 증가로 이어졌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8월 일거래액 3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거래액 800억 원을 넘겼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목표 거래액 8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지역의 콘텐츠가 타 국가로 연결되는 ‘크로스 보더’ 현상도 두드러졌다. 한국 작

품 ‘여신강림’은 미국·일본·태국·프랑스를 포함한 각국에서 인기 순위 상위에 올랐다. 최근 글로벌 연재를 시작한 ‘더 복서’도 미국·태국 등에서 거래액 증가가 확인된다. 영어 작품 ‘로어 올림푸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프랑스·스페인·라틴아메리카 지역 인기 순위 상위에 올라 최근 한국에서도 연재를 시작했다.

웹소설 원작 웹툰들도 글로벌 지역에 서비스 중이다. ‘재혼황후’는 태국·대만 지역에서 인기 순위 5위 안에 올랐다. ‘전지적 독자시점’도 인도네시아·태국·대만에 이어 8월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1호는 ‘포스텍 홀딩스’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 원 규모의 펀드가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엑셀러레이터인 포스텍 홀딩스가 1호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됐다고 7일 밝혔다. 51억 원 규모의 ‘IMP 1호 펀드’로 IMP는 포스코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Idea Market Place)를 뜻한다.

이번 벤처 투자조합 탄생은 8월 12일 시행된 ‘벤처투자법’에서 엑셀러레이터에게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한 이후 첫 사례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기획자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

51억 규모 ‘IMP 펀드’ 조성
“IMP프로그램 통해 발굴한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

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벤처투자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기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을 엑셀러레이터도 결성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 것이다.

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쉬워진다. 초기창업자 투자외 및 상장사 투자 비율도 완화돼 투자 자율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 홀딩스는 2017년 1월 말 중기부에 엑셀러레이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주현 포스텍 홀딩스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엑셀러레이터도 큰 규모의 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며 “조합 출자금은 포스코 IMP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창업기획자이자 펀드 운용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에듀테크, 대기업 갑질에 ‘속앓이’

▶1면서 계속

코로나 시국에 최대 1000만 명의 유료 시청자를 보유한 IPTV 업체와 콘텐츠 교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 업체는 현재 무료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D업체는 기존 제휴 통신사와의 제휴를 끊고, 새로운 통신사와 계약을 맺으려 하지만 소위 ‘보복’이 두려워 냉기습을 앓고 있다. 현재 제휴 통신사가 주는 유료 콘텐츠 비용이 적어 새 통신사와 제휴하고 싶지만 한번 제휴가 끝나면 다시 같은 통신사와 협력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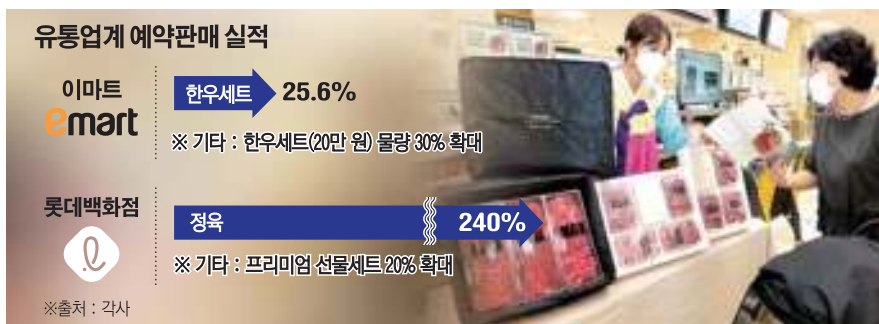
“짜힐까 봐” 제휴를 끊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에듀테크 업체 대표는 “포털과 통신사 눈치를 보며 제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심이 더 커졌다”며 “에듀테크 업계가 민간 시장이지만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합리적 제휴를 맺는지, 대기업의 횡포가 없는지 정도는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언택트 에듀테크 시장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일부 중소에듀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과정에서 불만 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상생의 큰 틀 안에서 불합리한 계약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언택트 추석, 정성은 두 배로” 프리미엄 선물 인기

20만원 이상 한우 세트 매출
작년보다 28.4% 늘어나
직접 뽑지 못하는 보상심리에
줄어든 귀성비 선물에 투자
의류·해외 직구 제품도 선보여



올 추석엔 프리미엄급 고가 선물이 대세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석 명절 기간 친지 방문과 대면 접촉을 자제하면서 이를 대신할 비싼 선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추석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분석해보면 고가 제품 판매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상품군도 종전의 정육, 굴비 등 먹거리 위주에서 의류와 해외 직구 상품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7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전체 실적이 11% 증가한 가운데 한우 세트는 2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만 원 이상 한우 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28.4%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매출 비중도 작년보다 2%p(포인트) 오른 69%를 차지했다.

롯데백화점의 사전 예판에서도 가격대가 높은 정육 매출이 240% 치솟았고, 굴비도 16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도 프리미엄 한우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올 추석 부모님이나 고마운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에 더해 귀성 여비가 절약된 만큼 선물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하고자 하는 소비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해 프리미엄 선물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는 올 추석 20만 원 이상의 고가 한우 세트 물량을 전년보다 30%가량 확대

한 한편 3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 가짓수도 지난해 9개에서 올해 14개로 대폭 늘렸다.

대표 품목으로, 올해 첫선을 보이는 ‘프리미엄 피코크 한우구이 1++세트(등심·채끝 각 1kg)’과 ‘피코크 한우 등심 1++세트(구이용·스테이크용 각 1kg)’로 행사 카드 결제 시 10% 할인한 각각 31만5000원, 30만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도 프리미엄 선물세트 및 인기 선물세트 물량을 20% 이상 확대했다. 대표 품목으로 한우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의 한우 세트인 ‘L-NO.9 세트(100세트 한정, 6.5kg)’를 170만 원에, 귀한 참조기만을 엄선해 만든 ‘영광 법성포 굴비 세트 황제(굴비 2.7kg)’를 200만 원에 내놔다.

또한, 프랑스 보르도에서 1등급으로 분류되며 5대 샤또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와인으로 구성된 ‘KS 1994년 올드 빈티지 그랑크뤼 세트(2세트 한정, 3병)’를 700만 원,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땅속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생트러플(송로버섯) 세트(120g)’를 55만 원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도 14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기간 동안 4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추석보다 1.5배 늘렸다. 또 한우의 상품 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1++(9) 등급 최고급 한우에 송로버섯 소금(100g)·송로버섯 치즈크림소스(90g)·송로버섯 머스타드소스(90g)·

검은서양송로 올리브오일(250ml) 등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고급 그로서리(식료품)를 함께 구성한 ‘넘버나인 프리미엄 세트(75만 원)’가 대표적이다.

여물을 끓여 먹어 전통 사육 방식으로 관리하는 최고급 한우인 ‘현대 화식 한우 매 세트(찜갈비 1.1kg·등심 로스 0.9kg·채끝 스테이크 0.9kg·불고기 0.9kg으로 구성, 64만 원)’를 출시했다.

롯데백화점은 24일까지 롯데 온라인몰인 롯데온에서 ‘2020년 롯데 캐시미어 페어’ 온라인 선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캐시미어 100% 소재 니트를 정상가 대비 25% 할인한 6만 원 대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유닛 캐시미어 100% 여성 라운드넥 니트’ 등 4스타일의 경우 정상가 8만8000원에서 사전 구매 혜택을 적용하면 6만6000원으로, ‘유닛 캐시미어 100% 남성 터틀넥’ 니트 등 3스타일은 정상가 9만8000원에서 7만3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11번가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한 소비자들의 쇼핑 수요가 해외직구로 몰리면서 추석선물도 해외 직구로 구매하려는 이들을 겨냥해 ‘물 건너온 온갖 추석선물’ 기획전을 2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기획전 키워드는 건강이다. 11번가에만 단독으로 입점한 미국 최대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체인 ‘아이허브’의 종합비타민, 영양제 등 1만5000여 개 상품이 준비돼 있다. 또 해외직구 스테디셀러인 명품 패션잡화, 화장품, 가전 등 500여 개 상품도 기획전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코로나 치료제 연말 사용신청”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개발 성공 자신감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연설
“효능시험에서 폐 염증 개선”



이 현저히 개선되고 바이러스 역가가 100분의 1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한 햄스터 실험에서도

서정진(사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빠른 속도로 임상을 진행해 연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7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의 특별 연설자로 나서 “국내 규제기관과 협력해 9월 말부터 항체치료제의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을 희망한다”면서 “임상 2상 결과 안전성이 탁월하면 연말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는 지난 17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 임상 1상 투약을 마쳤다. 최근에는 경증 환자 대상 임상 1상도 진입했다. 식약처는 현재 CT-P59의 임상 2/3상 IND를 심사 중이다. 셀트리온은 CT-P59의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즉시 국내 필요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10배치 이상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한다.

서 회장은 “임상 3상은 늦어도 내년 5월에 완료할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곳보다 항체치료제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CT-P59는 페릿(즉제비)을 대상으로 한 효능시험에서 폐의 염증 수준

바이러스가 190분의 1 이하로 감소했으며, 부검 후 육안으로 관찰한 폐 모양에서도 대조군 대비 염증이 뚜렷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를 국내에서 원가로 판매하고, 해외에서는 다른 경쟁 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 큰 폭의 매출과 수익성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서 회장은 “항체치료제는 내년 셀트리온의 매출을 크게 신장시킬 것”이라며 항체치료제가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을 바이오시밀러·바이오메터를 넘어 신약 개발 단계까지 빠르게 확장시키는 촉진제가 됐다고 자평했다.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활용해 다국적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지로도 활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 확대는 물론 국내 백신 물량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생산 규모의 약 15%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며 “단백질제조업 백신 생산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위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안성 스타필드, 내달 7일 그랜드 오픈

트레이더스, 이달 25일 문 열어

경기 남부 최대 쇼핑 테마파크인 스타필드 안성이 내달 7일 그랜드 오픈한다.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동참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객 안전을 위해 스타필드 안성 그랜드오픈을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7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하남, 코엑스몰, 고양에 이어 3년 만에 선보이는 스타필드 안성 개점에 주력해왔다. 당초 추석 연휴 이전에 오픈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고객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해 추석 연휴 이후 개점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다만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5일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트레이더스 분산 오픈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둔 고객들의 추석 준비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랜드 오픈 당일 혼잡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은 연면적 24만㎡, 동시주차 5000대 규모의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창고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부터 고메스트리트는, 잇토 피아, 카페 등 F&B 시설은 물론 일렉트로마트, 토이킹덤 등 전문점까지 입점 매장이 300여 개에 달한다.

가족 단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다. 스타필드 대표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



터는 물론, 지역 최초 MX관 및 키즈관을 제공하는 메가박스 등이 입점했다. 63M 전망타워에는 카페가 운영되고, 실내 광장은 테라스 좌석운영을 통해 색다른 F&B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스타필드 안성은 지역민에게 쇼핑은 물론 문화, 힐링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 역시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동참하고 고객 안전을 고려해 그랜드 오픈을 추석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마트, 3% 희귀 복숭아 ‘대항금’ 판매

롯데마트는 15일까지 전 점에서 충북 괴산군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권순수 농부의 농가를 비롯한 36개 복숭아 농가에서 수확한 ‘산지특심 대항금 복숭아(1박스/4~7입)’를 1만6800원에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항금’은 충북에 위치한 신수농원에서

품종보호를 출원한 품종(품종 등록 제 4572호)이다. ‘대항금’ 품종은 국내 복숭아 생산량의 3%, 충청도에서도 10% 이내의 생산량을 보이는 희귀 품종이다.

품종 보호는 품종의 고유한 상품성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충북 괴산은 산간지역이 많아 배수가 잘 되고 빛을

고르게 받을 수 있으며 토지가 비옥해 복숭아 생산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대항금’ 품종의 복숭아는 과실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대항금 황도 복숭아’는 롯데마트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산지특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롯데마트는 전국 우수 산지 생산자들의 상품을 ‘대한민국 산지특심’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2025년 매출 1000억 목표”

한섬, 액세서리 사업 키운다

현대백 ‘더 한섬 콜렉티드’ 오픈

패션업계가 액세서리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류 매출에 타격을 입자 신성장동력으로 액세서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섬은 액세서리 전문 편집 스토어 ‘더 한섬 하우스 콜렉티드(THE HAND-SOME HAUS COLLECTED)’〈사진〉를 연다고 7일 밝혔다. 24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첫 쇼룸을 열고, 향후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서 단독매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액세서리 제품 수는 지난해보다 30% 늘린 총 1400종을 출시할 예정이며, 올해 액세서리 부문 매출 목표도 작년(170억 원)보다 2배 늘어난 350억 원으로 높여 잡았다. 한섬은 그동안 전체 제품에서 액세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었던 만큼 성장 여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섬은 내년부터 액세서리 전문 매장과 온라인 채널 확대, 면세점 진출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연간 매출 규모를 2025년까지 1000억 원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윤현주 한섬 집화사업부장(상무)은 “액세서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의류 중



심인 한섬 주요 브랜드를 ‘토털 패션 브랜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액세서리 제품 특성을 살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6월 ‘빈폴스포츠’를 정리하면서도 빈폴 액세서리(빈폴 ACC)는 SSG샵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브랜드로 유지하고 있다.

LF는 2016년 질바이질스튜디오 브랜드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일찌감치 액세서리 사업을 강화해 의류와 액세서리, 화장품까지 아우르는 종합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떼 바네사브루노’ 등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액세서리 제품군을 확장 중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박스에 갇힌 코스피… 개미들 “믿을 건 삼성전자”

개인투자자 16거래일 동안 1조3957억원어치 순매수
우선주도 4065억… 개인 코스피 순매수액 1·2위에
“스마트폰 선전·D램 반도체 가격 반등… 실적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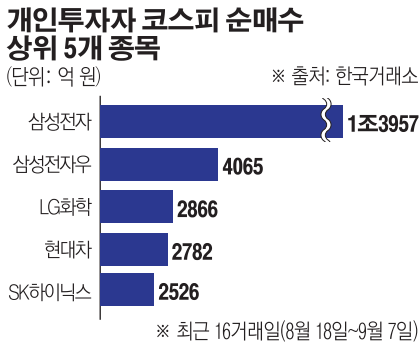
광복절 이후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자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에 다시 몰려들고 있다.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이는 3월 폭락장서 안정감 있는 삼성전자를 사 이득을 본 경험을 재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장밋빛 전망을 보이면서 동학개미의 이번 베팅도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

확산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16거래일 동안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조395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기간 개인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4065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개인투자자 코스피 순매수액 1·2등을 삼성전자 주식이 모두 차지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7월 말께 인텔의 반도체 생산 외주 가능성과 2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6만 원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적 발표 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주춤해 5만 7000원대로 내려왔다. 이후 삼성전자는



IBM의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를 위탁생산하는 호재로 반등하며 지난달 18일 장 중 전고점(5만9900만 원)을 찍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규모가 예상 밖으로 커지면서 주가는 5만5000원 내외로 내려앉았다.

개인들은 탄탄한 실적과 잇단 호재로 분출한 삼성전자 주가가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히자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큰 변동성에도 2400선을 제대로 넘지 못하자 “결국은 오른다”는 삼성전자의 안정감에 기대를 거는 개인도 많아졌다.

실제 하루 만에 4.15% 하락한 지난달 20일 개인은 기관이 던지는 매물을 받아내며 3155억 원을 사들였다. 이후 삼성전자가 2.53% 하락한 지난달 31일에도 5536억 원어치를 끌어 담았다. 개인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 3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화로 인한 폭락장세에서 개인이 삼성전자를 13거래일(3~23일) 연속 사들인 이후 최장 순매수 행렬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여러 호재로 인해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삼성전자 매출의 기여도가 큰 D램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 변화로 스마트폰 사업의 선전 가능성도 커

지고 있다. 또 미국이 중국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를 제재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사수혜 기대감도 커지는 중이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 분위기와 미국의 SMIC 제재 가능성은 삼성전자 주가에 호재”라며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인도-중국의 마찰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전자의 IM(스마트폰) 부분의 영업이익은 3.14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6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분기 이후 최고 실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롯데관광개발 ‘2세 경영’ 속도

김한준 사장 사내이사 선임 관련 임시주총 21일 개최
제주리조트 사업 성과 인정… 입지 한층 더 강화될 듯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차남 김한준 사장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사회에 입성한다. 2세 경영의 중심에 있는 김 사장의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21일 오전 9시 본사 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주총 선임 안건은 김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오명 씨의 사외이사 선임 건이다.

회사 측은 김 사장의 사내이사 추천 사유로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 부분의 실무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괄하며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후보자의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이 기업경영 및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김 회장의 차남이며 현재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신정희 씨가 모친이다. 신 이사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막내 여동생이다. 김 사장 위로는 장남 김한성 씨가 있으며 모친과 함께 동화면세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장남은 면세점, 차남은 개발 사업을 도맡아 운영하는 셈이다.

김 사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롯데관광개발 지분 0.42%(29만757주)를 갖고 있다.

최대주주는 김기병 회장(28.54%)이며 신정희 이사(2.03%), 김한성 대표(0.93%) 외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인 동화투자개발(16.20%)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사장의 지분이 형보다 적지만 김 대표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경영 승계의 무게 추는 김 사장에 기울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사장을 비롯해 회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제주 복합리조트는 이달 준공을 완료하고 연내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총사업비로만 1조6000억 원이 투입된 야심작으로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다. 회사는 복합리조트를 통해 매출 1조 원 고지에 오른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에서 확장 이전 문제에 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카지노 이전 작업도 원활히 진행 중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는 김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계기로 1명의 사외이사도 추가 선임한다. 회사 정관상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두게 돼 있어서다. 후보자인 오명 씨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시작으로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관출신 인사다. 동부하이텍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는 한국뉴욕주립대 명예총장으로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SK바이오팜 288% ‘대박’…엔피디 -27% ‘눈물’

희비 엇갈린 새내기주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 58%
올 상장 27개 종목 중 23개 ↑
제약·바이오 업종 105% 상승

국내 증시에서 IPO(기업공개)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200%가 넘거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있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4일 증가 기준 올해 상장한 27개의 종목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57.56%로 나타났다. 또 현재 주가를 공모가와 비교한 결과 23개의 종목이 공모가보다 올랐고, 4개의 종목이 공모가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공모가 대비 상승한 코스닥 상장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60.87%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주가상승률을 보면 SK바이오팜이 공모가 4만9000원 대비 주

공모가 대비 등락률 상·하위 종목
(4일 증가 기준)



가가 287.7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바이오시스 224.0% △레몬 139.58% △한국파마 135.00% △엘이티 121.15% △에스씨엠생명과학 78.01% 등이다. 반면, 엔피디는 공모가 5400원 대비 주가가 -26.76% 하락했고, 뒤이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21.30% △더네이처홀딩스 -

13.04% △엠투아이 -11.54% 등이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테크 기반의 종목들이 많았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 △제약·바이오 104.87% △IT서비스·소프트웨어 33.00%의 수익률을 보였다.

증권업계는 현재와 같은 IPO 열풍 속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호재가 향후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SK바이오팜을 전후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최근 카카오게임즈와 박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징성을 지닌 대형주의 성공적인 상장은 통상 관련 산업 및 기업으로의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 기업 관련 종목과 해당 업종에 대한 매기 확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MTS 서버 또 터질라”… 불안한 투자자들

증권사 MTS, 카카오게임즈 청약 물리자 과부하 오류
빅히트 청약 앞두고 서버 증설 나섰지만 불안감 고조

‘IPO대어’로 꼽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엔터)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상장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MTS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MTS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달 1~2일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 당시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시스템 과부하로 오류가 발생해 아예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청약 첫날 접속 지연 문제가 발생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양일에 걸쳐 접속 오류 문제가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대비해 한 차례 서버 증설을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투자자가 몰리면서 시

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빅히트엔터 청약에도 비슷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서버 증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빅히트엔터 공동주관사인 NH투자증권도 주요 전산서버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들의 MTS 서비스 오류는 올해 증시에 새롭게 입성한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더욱 잦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 모바일 고객유치에는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시스템 오류가 자주 발생하면서 서버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MTS 서비스 오류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게 피해금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MTS 오류 문제를 두고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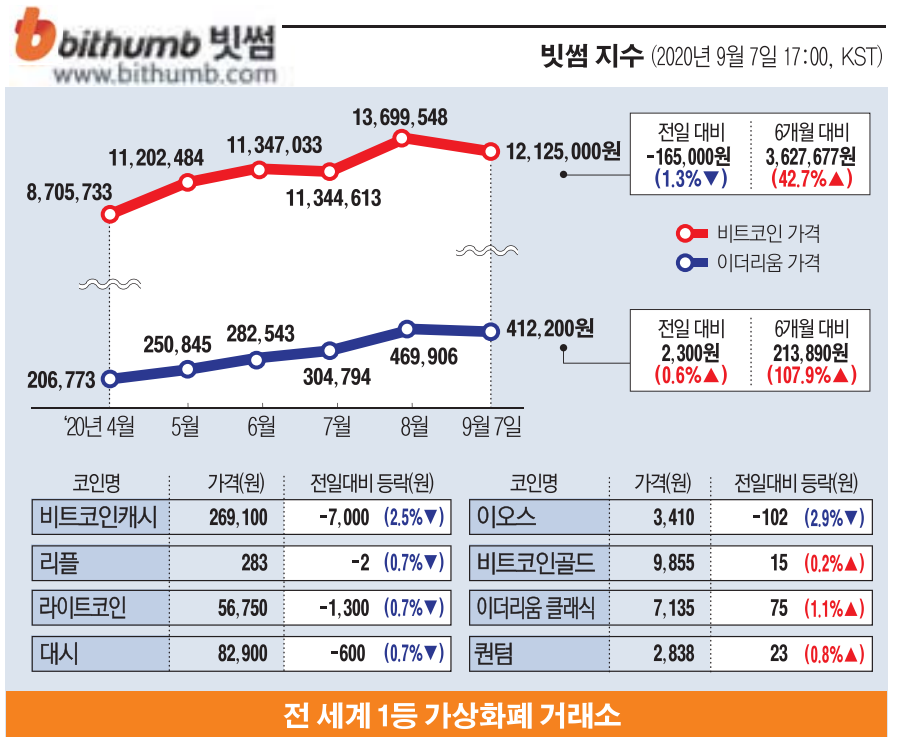
권사 대상 소송 제기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실제 집단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 중심으로 증권사 대상 소송 이야기가 나왔지만,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오랜 시간이 걸려 개인투자자가 진행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상 증권사는 자체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위원회 개최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한다”며 “홈페이지로 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보호부에서 접수해 검토한 후 절차대로 보상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측도 이번 MTS 오류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배상금 산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서버 증설 비용에 투자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며 “이미 증권사 간 계좌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다른 MTS로 계좌를 옮기는 게 투자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인아 기자 lijn@



분당·일산 아파트 리모델링··내력벽 철거 업고 급물살 탈까

건설기술研, 내력벽 철거 안전성 검증 마무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발표가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조건부 허용을 전제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도 일도양단식으로 내력벽 철거를 결정하기보다는 일정한 조건을 내세우는 식으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내력벽량의 몇 % 철거를 허용한다거나, 철거를 허용하되 구조 보강 및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에도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로 하중이 늘어나는 건물 기초부 말뚝이 전체 말뚝의 10% 이하일 때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건축 어려운 1기 신도시, 수직증축이 대안 = 내력벽 철거 허용에 가장 관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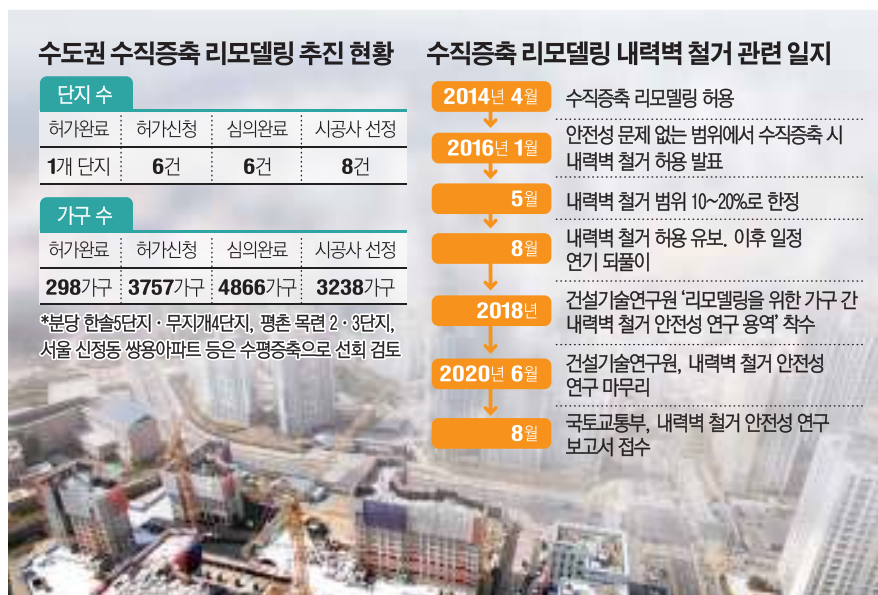
철거 없이 증축 댄 소형 평형 타격 채광·통풍 나빠져 주민동의 난망
지반·단지 규모도 사업성패 좌우

내년부터 30년차 노후 아파트 즐비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도 힘들어

높은 지역은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다. 내년부터 준공 30년 차를 맞는 노후 아파트가 줄줄이 나오지만 기존 용적률이 200% 안팎인 단지가 많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서다.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건축 승인도 어려워졌다.

리모델링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안전진단 기준이나 노후도 조건도 느슨하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가능만 하다면 수직증축이 수평증축(기존 아파트



옆에 새 아파트를 덧붙여 짓는 방식)보다 더 낫다는 게 중론이다. 리모델링 후 늘어나는 가구 수가 더 많아 분양 수익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서다.

이때 관건이 내력벽 철거다. 벽면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 수직증축을 하면 설계 변경이 어려워 실내 공간이 앞과 뒤로만 긴 동굴형 구조가 나온다. 실내 동선이 복잡해질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관련 일지

- 2014년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2016년 1월 안전성 문제 없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 허용 발표
- 5월 내력벽 철거 범위 10~20%로 한정
- 8월 내력벽 철거 허용 유보, 이후 일정 연기 되돌림
- 2018년 건설기술연구원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 착수
- 2020년 6월 건설기술연구원,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마무리
- 8월 국토교통부,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보고서 접수

뿐 아니라 채광이나 통풍 등도 나빠진다. 수직증축 단지들이 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애타게 기다린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에선 리모델링을 위해 내력벽 철거가 절실하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 연구실장은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평형은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면 실

내 공간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며 “매력적인 평면을 제공하지 못하면 주민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반 강도·단지 규모가 안전성·사업성 좌우 = 리모델링 업계에선 아파트 정밀구조 진단 결과에 따라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큰 만큼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 말뚝 등 건물 기초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일이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지반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1기 신도시 아파트 70~80%가 말뚝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라며 “수직증축을 하려면 건물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말뚝을 박아야 하는데 지반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단지 규모도 리모델링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아파트를 위로 더 올리는 수직증축은 공사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도 ‘패닉바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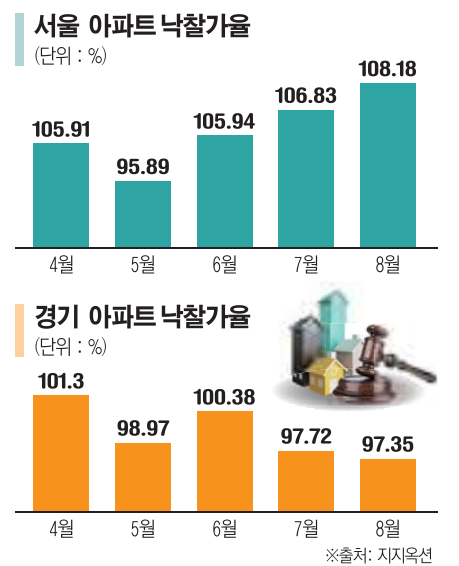
지난달 낙찰가율 108% ‘올 최고’
서울 중심 뚝뚝한 한 채 수요 영향
경기·인천 등 감소 ‘양극화 지속’

#.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에서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103동 1105호 경매가 진행됐다. 이 물건 경매에는 7명이 참여했다. 최종 낙찰가는 14억3200만 원으로 감정이 13억2000만 원보다 1억1200만 원가량 높았다. 낙찰가율(감정이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8% 수준이었다.

#.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 2계에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월곶2차유호엔플러스빌 102동 1001호에 대한 경매가 열렸다. 이 물건은 지난 2월 한 차례 유찰됐다. 이날 경매에는 단 한 명만 응찰했고, 해당 물건은 감정이 2억8100만 원보다 4302만 원 낮은 2억3798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4%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매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감정보다 훨씬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국 경매시장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쪼그라들어 붙은 것과는 판판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매매가격도 계속 오르자 경매시장에서도 ‘패닉 바잉’ (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른



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8.18%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5월 이후 줄곧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강세는 실거주와 투자 수요 모두 ‘뚝뚝한 한 채’를 찾아 물린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7월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8.89명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평균 낙찰가율은 106.83%로 지난달보다 1.35%포인트(P) 낮았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경매 시장은 냉랭하다. 지난달 경기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7.35%로 지난 6월 이후 줄곧 하락세다. 인천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역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전세보증금 못주는 집주인 크게 늘었다

올 대위변제 3015억 ‘사상 최대’

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3015억 원(1516가구)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대위변제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

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인데도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난다는 건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www.kwnews.co.kr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보는
江原日報 X NAVER
네이버 구독자 75만명 돌파!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강원도의 이익이 강원일보-네이버를 통해 극대화 됩니다.

강원일보
강원도 대표 신문

주요뉴스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국제·환경·건강·교육·법률·노동·여성·가족·청소년·문화·스포츠·국제·환경·건강·교육·법률·노동·여성·가족·청소년

동서고속물동해북부선
내년말 통시착공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江原日報社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마무리 “건설사들, 인천시에 200억 배상”

대법 “낙찰가 오르며 손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인천시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해당 건설사들이 인천시에 20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인천광역시가 GS건설,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건설과 SK건설은 2005년 8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인천구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은 705공구를 1417억 원에, SK건설 컨소시엄은 706공구를 1257억 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이후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는 이들의 행위로 입찰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과 SK건설은 대립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과 함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서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 701~706공구 중 1개 공구에만 응찰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한 뒤 각자 목표로 한 공사를 낙찰받았다.

재판에서는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이 쟁점이 됐다.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이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가 된다.

법원은 “경쟁제한 행위 때문에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과 SK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두고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2015년 2월 가상 경쟁가격의 낙

찰률을 약 66%로 보고 인천시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해 건설사들이 총 6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위가 정상적 경쟁입찰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6공구의 낙찰률(66.078%)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공구와 인천도시철도 206공구는 낙찰가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다르다”며 “오히려 가상 경쟁 낙찰률을 80.37%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낙찰률 추정 방식은 불완전성이 내재해 있고 인천시가 담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폭우로 7일 강릉 경포호 물이 넘쳐 진안상가가 물에 잠겼다. 연합뉴스

외벽 무너지고 곳곳 침수 피해 마이삭 할린 곳 또 할린 하이선

월성원전 2·3호기 정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7일 기상청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하이선의 영향으로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고등학교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다. 영동 고속도로 의왕 방향 복수원 톨게이트 인근에서는 강풍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도로로 쓰러져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가로막았다.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2·3호기 터빈 발전기가 이날 오전 8시 38분과 9시 18분께 차례로 정지했다. 터빈 정지에 따른 방사선 누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로 7m, 세로 9m 철골 구조물이 태풍에 날려 20m 떨어진 빌라를 덮쳤다. 이 사고로 빌라 1, 2층 베란다와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부산에는 순간 최대 초속 32.2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몰바다가 됐던 강릉 경포 진안상가는 호숫물이 넘쳐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근처 대

형 호텔 인근부터 공영주차장까지 상가 대부분과 도로가 물에 잠겼다.

정전으로 주민이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북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1개 시·군 3만2692가구에서 정전피해가 났다. 경주 13개 지역 1만5400여 가구, 포항 26개 지역 9400여 가구, 영천 4개 지역 5200여 가구, 영덕 3개 지역 1600여 가구 등이다. 오후 5시 기준 9000여 가구에는 전기공급이 재개됐지만 2만3000여 가구의 주민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하이선이 많은 비를 뿌리면서 경주시 현곡면에선 하천 범람으로 주택 여러 채가 침수됐다.

전남도 하이선 영향권을 피해 가지 못했다. 영광에서는 국가 등록문화재 제678호인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안채가 무너졌다. 순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치고 뒤집히기도 했다.

하이선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7일 3시께 강릉 동북동쪽 약 40km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밤 9시 청진 남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 다다른 후 8일 새벽 청진 북쪽 육상에 상륙한 뒤 온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140일 만에 재수감

‘집회 참여 금지’ 조건 어겨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이던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기

자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문을 받은 뒤 구인장을 집행했다. 김종용 기자 deep@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웍스엔케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서울시 3개월 청년인턴십 “업무 연속성 있어야 효과”

7개 분야서 200명 추첨
경력쌓기 긍정적이지만
선발 방식 등 개선해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력 쌓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시는 이달 15일까지 중소혁신기업에서 일할 ‘공공연계 청년 인턴십 사업’ (경력 형성형) 참여자를 모집한다. IT·AI, 화학, 바이오, 먹거리 창업, 디자인, 정책 홍보, 관리 매니저 7개 분야에서 200명을 뽑는다. 사업에 선발된 청년들은 최대 3개월간 모집 분야별 중소·창업기업에서 업무 보조, 서울혁신산업 및 청년지원정책 홍보, 청년인턴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눈여겨볼 점은 선발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번 청년 인턴을 ‘추첨제’로 뽑는다. 지원 자격만 갖추면 별도의 채용 과정 없이 자동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근무지도 임의로 배정돼 21일부터 바로 업무에 투입된다. 1

일 8시간 동안 주 5일 근무하고 4대 보험을 포함해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을 두고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 사이에서는 근무 기간을 문제 삼는 의견이 많다.

취준생 윤모(30) 씨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실무를 경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근무지도 임의로 배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청년 인턴으로 6개월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모(30) 씨는 “취준생이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배려해주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단순히 전화를 받아 응대하거나 비품을 정리하는 등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정도 계약직이면 다른 일을 할 기회도 있겠지만 단기간 인턴은 사실상 알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의 연계사업인 만큼 인턴십을 채용을 전제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취준생 최모(28) 씨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3개월이라도 생활비를 벌 수 있다면 취업 준비할 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공공연계형 단기 인턴십이 효과를 내려면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턴십 실효성 여부는) 결국 다음 일자리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추첨제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타당성을 통한 경력 개발보다는 보여주기 형태의 인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기회를 주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인턴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인석 기자 mystic@



반기문(왼쪽)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및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송파구청

송파구, 탄소중립 계획 수립… 서울 자치구 최초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송파구는 2023년까지 발생 온실가스 배출량의 50%인 175만7178톤 감축한다.

이를 위해 구는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그린인프라 △전환 △대외협력 △평가·환류 등 8대 분야 33개 사업을 진행한다.

송파구는 대표적으로 나무 심기 사업인 ‘우리는 숲에 산다’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공원, 가로녹지, 송파둘레길 등 도시 곳

곳에 200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심어 송파를 ‘서울의 허파’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5호기까지 늘린 송파나눔발전소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공공건축물 에너지 제로화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며 “새롭게 마련한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송파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mywish73@

서울 ‘스타트업 축제’ 비대면으로

16~18일 ‘트라이...’ 300곳 참여

서울시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씽(Try Everything) 2020’을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트라이에브리씽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미국·프랑스 등 10개국 이상의 창업생태계 전문가 150명, 국내·외 300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은 물론 세

미나·경연대회 등 본 행사는 무관중 비대면 방식(온라인 중계)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핀테크 등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미국, 유럽, 베트남 등에 소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 저명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창업생태계의 동향 및 성공비결 공유 △60여 개 스타트업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8개의 스타트업 피칭 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타트업 성장 기회와 글로벌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과 비전을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창업지원 기관, 스타트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서울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들에게 벤처투자(VC) 유치와 글로벌 무대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정형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방역 기술부터 비대면 서비스까지 스타트업이 주축이 된 도전과 혁신은 기회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꿈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강동구 ‘코로나 민생안정’ 등 추경 190억 편성

강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9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강동구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제1차 추경 66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한 추경예산인 만큼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저소득노동자

지원 및 지역 화폐 발행 △실업 청년, 실직자 재취업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mywish73@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에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사전계약은 신차 출시 이전에 관심을 모으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즉 기망고객을 상대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가격과 선택사항 등을 최종 결정한다. 사진은 2018년 LA 오토쇼 현대차 팔리세이드 발표회 모습.

연합뉴스

사전계약 대박 땀 가격 올린다?...車 마케팅의 비밀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자동차 제조기업은 고가의 소비재를 개발·생산하고 판매해 수익을 챙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성능과 내구성을 지닌 제품이라도 시장에 내다 파는 기술이 부족하면 수익을 내지 못한다.

상품성이 떨어져도 마케팅과 상품기획력을 앞세워 차를 잘 파는 브랜드가 존재한다. 대부분 미국 차들이다.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시장에서 인정받는 메이커도 있다. 일본 차들이 그렇다.

한국차는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일본 차에 버금가는, 일부는 오히려 일본 차를 앞서는 상품성을 지녔으며 뛰어난 마케팅 전략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주요 시장에 뛰어들어 얻어낸 마케팅 기법을 바탕으로 두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 소비자에게 접근한 것이 주효했다. 자동차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들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자.

◇블라인드 테스트는 '자승자박'·현대·기아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이른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이름 그대로 자동차의 브랜드를 가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린 채, 오로지 성능과 내구성·상품성을 비교하는 테스트다. 엠블럼을 가리거나 특정 브랜드에 대한 편견 없이 오로지 자동차의

폭발적 인기 끈 현대 팔리세이드 5000만원 넘는 '캘리그래피' 추가 신형 카니발도 고가모델 나올 듯

“차보다 모델이 돋보여선 안 돼” 브랜드 파워 클수록 톱스타 기피 블라인드 테스트도 과감히 생략



2010년 기아차는 K7 출시와 함께 동급 일본차와 비교 테스트를 했다. 그러나 이제 비교 테스트는 금기가 됐다. 또한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톱 클래스 광고 모델을 배제하는 추세다. 아래는 현대차 SUV 광고에 등장한 배우 진선규.

상품성을 테스트한다.

때때로 테스트 참여자의 눈을 가리고 소음을 비교하기도 한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고가의 경쟁 차보다 소음과 진동 등을 포함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한때 성행했다.

이런 블라인드 테스트는 시장 후발주자들이 자주한다. 1등은 결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하는 자체가 “난 1등이 아니에요”를 강조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제 공식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중단했다.

불과 10년 전, 중형세단 YF쏘나타(6세대)를 발매 때만 해도 일본 토요타와 혼다를 경쟁 상대로 삼았고, 신차 발표회 때에도 이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기아차가 준대형 세단 K7을 출시했을 때(2010년)에는 토요타와 혼다 경쟁차종을 가져와 비교 테스트하기도 했다.

2013년 2세대 쏘울 출시 당시 “BMW그룹 신하 MINI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압승했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이후 단 한 차례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이제 스스로 ‘동급 1등’이라는 자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차 광고모델로 등장한 배우 진선규...왜? = 2018년 현대차 SUV 광고에 배

우 진선규가 등장했다. 영화 ‘범죄도시’에 조연급으로 출연해 주목받은 그가 TV 광고에, 그것도 현대차 광고에 등장해 큰 관심을 모았다.

자동차 광고에는 으레 톱스타가 등장한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엔 최고 인기를 누리는 남자 배우를 중형세단 광고에 등장시킨다. 배우 이병헌이 대표적이다. 수입차의 경우 고성능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스포츠 스타를 기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대·기아차가 이들보다 인지도가 낮았던 배우 진선규를 모델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차보다 광고모델이 돋보여서는 안 된다”는 철칙 때문이다.

이런 마케팅 전략은 글로벌 고급차 브랜드에서 종종 엿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을 장악했을 때나 가능한 마케팅 전략이다. 여전히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남아있다면, 거액을 들여서라도 몸값 비싼 인물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기도 한다.

◇사전계약 대박 나면 차 가격 오른다? = 지난 3월 기아차 쏘렌토가 사전 계약 신기록(1만8941대)을 세웠다. 이 신기록은 7월 말 국내 유일한 미니밴 기아차 카니발 사전 예약이 2만3006대에 달하면서 깨졌다.

이렇게 사전계약 단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차들은 공통점이 있다. 향후 차 가격이 오르거나, 옵션을 가득 채운 특별 모델을 내놓으며 값비싼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연식변경 단계에서 차 가격이 적잖게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가격은 출시 직전에 결정된다. 최종 가격은 사전계약 여부를 놓고 시장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예전에 없었던 사전 계약 제도는 자동차 회사로서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데이터 가운데 하나다.

출시 초기 큰 인기를 누렸다면 가격 대비 성능과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자동차 회사 차원에서는 안타까운 실수다.

예를 들어 현대차 대형 SUV 팔리세이드의 경우 출시 초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초기 출고 대기분만 1년 치에 달할 정도였다. 월 4000대 생산을 목표로 삼았으나 대기물량만 3만 대를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가격을 100만 원씩만 올렸더라면...”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출고 대기분만 따져도 300억 원 가까운 매출 상승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서 인기를 누린 차는 연식변경 때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올리거나 옵션을 채운 고가의 트림을 내놓는 게 일반적이다. 매달 새로 나오는 판매조건에서도 예능리가 없다.

팔리세이드가 출시 1년여 만에 5000만원이 넘는 스페셜 버전 ‘캘리그래피’를 추가한 것도 이런 이유다.

거꾸로 초기 인기가 시들하다면 마케팅 전략을 수정한다.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뜻이므로 가격을 낮춘, 저가형(보급형) 모델을 시장에 투입하기도 한다.

junior@

포털 사이트에 ‘고객만족도 1위’를 검색하면 수많은 자동차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실제 구매한 소비자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얼마만큼 만족하느냐를 평가해 순위를 정한다.

고객 만족도 평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순수하게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 여부를 설문지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다.

다른 한 종류는 조사기관의 주도 아래 평가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또는 일정 소비계층의 주관적인 평가를 거쳐 만족도 점수를 뽑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별도의 평가 기준을 선정

韓 고객 만족도 낮은 현대기아차, 美서 잘나가는 까닭

소수 구매자, 브랜드 충성도 커 ‘마이너리티 효과’ 한몫

르노삼성, 11년 연속 만족도 1위

하거나 배점 등을 나누면서 주관적 시각이 개입될 수 있다. 옳게 고객 만족도를 뽑아내는 전자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만족’ 여부를 벗어나 서비스와 품질·구매단계

·사후 관리 만족도 등 세부적으로 평가 분야를 나누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객 만족도 또는 서비스와 브랜드 만족도 1위에는 이른바 1등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늘 시장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브랜드가 만족도 1위의 단골손님이다.

예를 들어, 르노삼성은 11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토록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지만 내수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없다.

복수의 마케팅 전문가와 심리학자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이런 고객 만족도 1위의 배경에는 ‘마이너리티(minority) 효과’가 작용한다. 소수 구매자 집단이 지니는 브랜드 충성도가 고객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현대차 또는 기아차를 등지고 르노삼성자동차를 선택한 소비자는 만족도가 곧 ‘자기선택의 당위성’과 직결된다.

내가 선택한 브랜드에 만족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은 곧 ‘나의 잘못된 선택’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100% 만족하지 않아도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마이너리티 효과’는 마이너 브랜드 이외에 틈새시장을 겨냥한, 대다수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니치(niche·틈새) 브랜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객 만족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 품질조사에서 언제나 수위에 오르는 것도 일정 부분 마이너리티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페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잡화 브랜드
뭉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페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온챌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내년 국민참여예산 25개 늘어 63개 국민제안 數 비슷하지만 質 높아져”

권기정 기재부 참여예산과장

중앙정부 차원 도입 올해 3년차
적격성 심사·국민참여단 투표…
아이디어 좋지만 지지 못 받은
일부 사업 기재부서 구제하기도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은 63개(1199억원)로 올해보다 25개(142억 원) 늘어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이다. 3년 차에 접어든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민참여예산 활성화 뒤에는 제도를 도입한 기획재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주무과인 참여예산과의 권기정(사진) 과장은 서포터스를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렸다.

권 과장은 “제안 수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제안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닐까 본다”며 “적격사업 비율이 높아지니 각 부처도 사업화와 예산 반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숲을 조성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폐기물 노천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이 국민 제안으로 신규 추진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불법 영상물 자동검색 사이트가 확대된다.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

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건 포르투갈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2018년 도입했다.

권 과장은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이 오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선 기존에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국가 단위에선 국민이 재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제안에 대한 공론화,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와 사업 구체화, 국민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사업도 생긴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국민참여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선다. 권 과장은 “선호도 투표에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다”며 “예산실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이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송계영 위원·윤원식 소장

〈LG전자〉 〈제이피아이헬스케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0년 9월 수상자로 송계영(왼쪽 사진) LG전자 연구위원과 윤원식(오른쪽)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기업 수상자인 송계영 LG전자 연구위원은 냉장과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LG 시그니처 및 오브제 냉장과 등 다수의 혁신 제품을 개발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송 연구위

원은 압축기의 연속운전 기술, 열교환기 및 팬 등 고효율 부품 개발과 냉장과 내부 온도제어 알고리즘의 최적화 등을 통해 냉장과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5~10% 저감하는 등 우리나라 냉장과 절전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윤원식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연구소장은 X선 촬영 시 발생하는 산란방사선을 제거하고 화질을 개선해 진단 효율을 높이는 X선 그리드(Grid)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선진시장에 참



석돼 있던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국산 장비로 대체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그리드 기반 X선 영상장치는 입체적인 고밀도 영상 촬영이 가능해 유방암 진단 효율을 크게 높였으며, 그 결과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재훈 기자 yes@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에 남원우·조길원 교수 선정

과학기술 연구기금은 조은진·이기라·김신현·오준학 교수

남원우(왼쪽 사진)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조길원(오른쪽) 포항공대 교수가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을 받았다.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7일 제3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와 과학기술 연구기금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 부문에서는 남원우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전공 석좌교수, 응용 부문에서는 조길원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교수가 선

정됐다. 각각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받는다. 남 석좌교수는 효소 모방체를 사용한 생체 모방 연구를 통해 생무기화학 분야의 산소화학과 효소모방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국내 연구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은 정상급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조 교수는 세계 최초로 고분자 반도체 자기조립 나노선을 제조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성과를 내고 한국 과학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과학기술 연구기금은 기초 부문에서 조은진 중앙대학교 화학과 교수와 이기라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응용 부문에서는 김신현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와 오준학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뽑혔다. 연구과제는 유기합성, 나노입자 자기조립, 연성소재, 전자소재 등이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포스코건설,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키트



포스코건설은 3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마스크 1000장과 손 소독제 500개 등 한인 교포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키트를 기부했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포 사회를 돕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이전 방글라데시엔 한인 교포 1500여 명이 거주했으나 현재는 500여 명만 남았다.

DB하이텍, 박상권·한성진 상무



DB하이텍은 7일 박상권(왼쪽 사진)·한성진(오른쪽) 상무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상권 상무(기획팀)는 LG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등에서 마케팅, 전략기획 분야를 거쳐 2009년 DB하이텍에 입사해 전략 기획 부문 리더 역할을 수행다. 한성진 상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봉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 박대규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김연수

◆스포츠서울 △회장 김상혁 △대표이사 박건승

참전용사 비하 발언으로 궁지 몰린 트럼프 故 스티브 잡스 아내에게 ‘애먼 화풀이’

“좌파잡지 지분 보유”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이 참전용사 비하 발언으로 궁지에 몰리자 애플 공동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의 부인에게 화풀이를 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스티브 잡스의 아내 로런 파월 잡스(오른쪽)가 유산을 탕진하고 있다”면서 “스티브 잡스는 아내가 유산을 망해가는 극좌 잡지에 낭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트윗은 3일 미국 시사잡지 애플랜틱의 편집장 제프리 골드버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참전용사 비하 발언을 보도한 데 대한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골드버그 애플랜틱 편집장은 익명의 정보원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1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미군 전사자 묘지 방문을 취소하면



서 전사자를 ‘패배자’, ‘호구’로 부르는 등 참전용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히 부인했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다.

결국 불뚝이 상당 규모의 애플랜틱 지분을 보유한 로런 파월 잡스에게 튀었다. 2011년 10월 잡스 사망 이후로 로런 파월 잡스는 유산으로 애플과 디즈니 주식을 물려받았다. 이후 교육 개혁과 사회적 분배, 환경 보호 등을 추구하는 단체 ‘에머슨 컬렉티브’를 창립했고 에머슨 컬렉티브는 2017년 애플랜틱 주식을 사들였다.

김서영 기자 0jung2@

환깁에 친 공이 심판 맞혀… 조코비치 US오픈 실격패

“의도치 않았지만 잘못된 행동”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해 US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실격패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이날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남자 단식 4회전(16강전)에서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27위, 스페인)와 맞붙었다. 조코비치는 1세트 게임 스코어 5-5 타이틀을 이뤘고,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도 지면서 5-6으로 역전당했다. 이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조코비치는 베이스라인 뒤로 공을 쳐 보냈고, 하필 선심의 목을 정통으로 맞히면서 선심이 그대로 쓰러졌다. 경기는 중단됐고, 심판들은 논의 후 조코비치의 실격패를 선언했다.

조코비치는 “화가 나서 공을 쳤지만 고



노박 조코비치가 자신이 던진 공에 맞아 쓰러진 선심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의가 아니었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은 “고의성은 없었지만 선심이 맞았고 다친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실격패를 선언할 만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몇 시간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조코비치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유감”이라면서 “다행히도 선심이 괜찮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도치 않았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부음

오스카 수상 체코 영화감독 이리 멘젤

아카데미상을 받은 체코의 거장 영화감독 이리 멘젤이 5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2세.



1938년 체코에서 태어나고 자란 멘젤 감독은 28세이던 1966년 개봉한 장편 데뷔작 ‘가까이서 본 기차’(Closely Watched Trains)’로 이듬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거머쥐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그는 ‘줄 위의 종달새’(Larks on a String), ‘나의 고향’(My Sweet Little Village) 등의 작품을 통해 “사회나 체제의 부조리, 모순을 은유와 풍자, 웃음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MLB 1960~70년대 ‘도루왕’ 루 브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에서 1960~1970년대 ‘대도’(大盜)로 이름을 날렸던 전설적인 도루왕 출신의 루 브록이 7일(한국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브록은 1961년 시카고 컵스를 통해 메

이저리기에 데뷔했고, 1964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이적한 뒤 16시즌 동안 한 팀에서 뛰었다. 브록은 총 8차례 도루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프로 통산 938개 도루를 기록했다. 이는 1991년 리키 헨더슨이 경신하기 전까지 메이저리그 통산 도루 1위 기록이었다.

▲윤한중 씨 별세, 윤현갑(코스콤 IT리스크관리부 팀장) 씨 부친상 = 7일, 창원영락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55-292-4444

▲김동은 씨 별세, 김귀옥·용항(전 부산대 교수)·종환(사업) 씨 부친상, 양인모(크로아티아 주한 명예총영사·전 삼성엔지니어링 부회장) 씨 장인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02-3410-3151

▲정환봉 씨 별세, 김한수(프로야구 전 삼성 라이온즈 감독) 씨 장인상 = 7일, 대구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9일, 053-620-4670

▲유도재(유한학원 이사장·전 청와대 총무수석) 씨 별세, 최금순 씨 배우자상, 유원·지혜 씨 부친상, 권영세(국민의힘 국회의원) 씨 장인상, 김재금 씨 시부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02-3410-6917

3無 교육정책이 만든 원격수업의 현실

아이들이 7개월째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줌이 쉴 틈도 한데 그럭저럭 잘 참는 것을 보니 기특하다. 밖에 나가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또 '방콕' 신세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남녀노소, 귀책(유책)을 가리지 않다 보니 영락없이 아이들도 갇힌 신세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살아야 할 지식이나 체득해야 할 사회성은 고스란히 부모(조부모) 몫이 됐다. '밥상머리 예절'에 신경을 쏟던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 미래를 바꿀 공부까지 일일이 챙길 수밖에 없다. 생업 전선에서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의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니 학부모들은 코로나19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애들은 애들대로 스트레스가 많다. 원격 수업이라지만 그냥 동영상 시청이다. TV에 나오는 낮익은 강사를 멍하니 본다. 한창 질문할 나이에 단방향 수업식 교육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그래도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다. 집에서 TV로 공부를 한다니 신기하기도 했다. 7개월이 흐른 지금, 원격 수업을 반기는 애들은 드물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첫 번째는 교육 당국의 무관심이다. 온 나라가 방역에 힘을 써야겠지만 교육 당국은 이에 더해 백년대계를 돌봐야 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요란한 구호만 늘어놓을 뿐 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로

데스크칼럼

장 효 진

사회경제부장



얼버무린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기 시작하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이 커 보인다.

원격 수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학습 격차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학생·다문화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등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7개월 동안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없었다.

두 번째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이다.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원격 수업의 묘미는 '쌍방향 수업'이다. 화상으로나마 교사와 아이들이 얼굴을 보며 수업을 해야 학습 효과라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22만여 명의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 쌍방향 원격 수업 비율은 약 14%에 그쳤다. 교육부가 이 비율이 점차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지만 당장 필요한 때 쓰지 못하는 뒷북 행정에 그칠 게 뻔하다.

원격 수업은 다양한 콘텐츠가 뒷받침돼

야 한다. 이는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겨 놔다. 일부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법도 한데 눈에 띄는 예산 집행은 없다. 2학기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고3 제외)의 등교가 20일까지 중단됐다. 이 기간 아이들은 해왔던 대로 지루한 원격 수업을 받게 된다. 일주일에 1~2회 부분 등교가 이뤄진다고 해도 사정은 나아질 게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당국의 무성이다. 원격 수업도 교육이다. 엄연히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이를 분석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정책 결정들이 있어야 한다. 7개월이 지난 동안 원격 수업에 대한 평가 지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도 혼란스럽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종식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격 수업은 뉴노멀이 됐다. 이미 우리나라 교육 방식의 한 축이 됐다는 의미다.

원격 수업을 임시방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js62@

배준호의 세계는 왜?



국제경제부 차장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를 꼽으라면 '노인 정치'를 들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 시대에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정계에서 은퇴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언론 사이에서는 최근 심심치 않게 노인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건강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지도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큰 충격과 혼란을 안길 것이 확실하다.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는 이미 두 명의 노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펼치고 있어 최소 4년간은 노인 정치가 계속된다. 그만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도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74세인 트럼프는 취임 당시 70세로, 69세인 로널드 레이건을 넘어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당선자가 됐다. 그러나 바이든은 더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 내

미국 대선, 계속되는 노인정치

년에 취임하면 나이가 무려 78세로 최고령 기록을 다시 깨게 된다. 이렇게 고령인데도 바이든은 예전부터 말실수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트럼프가 계속해서 '바이든 치매설'을 주장하는 계기가 됐다.

유권자들도 바이든이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라스무센이 6월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는 "바이든이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답했으며 14%는 "그의 건강상태를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도 건강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그는 자신이 2018년 치매검사를 통과했다고 자랑하면서 바이든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도 6월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컵을 한 손으로 들지도 못하고, 계단에서 엉거주춤 내려가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노출했다. 이달에는 트럼프가 뇌졸중을 앓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의 일정은 살인적이어서 사실 건강한 중장년이라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80세를 바라보는 두 대선 주자의 모습이 위태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건강을 넘어 근본적으로 이런 노인 정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는 노인이 장악한 상태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0세이며 상·하원 지도자 대부분은 75세 이상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지금의 노인 정치는 사실상 젊은 시절 막대한 부를 쌓은 인사들이 이런 자금력과 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펼치는 금권주의와 마찬가지로"라며 "부유한 노인의 손에 집중된 권력은 소외계층을 희생시키면서 오직 노인과 부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기후변화는 그 위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젊은 세대의 투입과 아이디어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지금의 노인 정치가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 젊은이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너무 과도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 정치가 관록에서 우리나라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젊은 리더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baejh94@

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지표 설정과 준수를 위한 준칙을 마련 중이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주된 관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준칙은 재정건전성,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사안이고, 원칙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나라의 신용이 위협받는다.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범위에서 묶고, 재정수지 적자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런 원칙을 준용하되, 예외적 확장 재정을 용인하는 느슨한 기준으로 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올해의 상황 같은 경우, 재정의 역할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나라 재정은 벌써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성장을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43.5%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장 2020~2024년 국가재정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5.7%인데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친다. 코앞의 2022년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GDP 비율도 50.9%에 이른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이미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다.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을 세우고,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의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나라빚을 늘리면 채무를 갚을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재정준칙과 관련, 독일의 사례가 많이 거론된다. 독일은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3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올해 우리의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에 이른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국가채무비율 급등을 우려하면서, 채무비율이 늘어난 다음 해 반드시 재정수지의 흑자를 유지해 재정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복지분야 의무지출만 늘어나고 세입수입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량지출과 달리 줄일 수도 없는 재정 부담의 가중이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 지출을 비롯해,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보험 급여 등이 급증한다.

과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았지만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나랏빚 증가는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심각한 짐이다.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고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준칙이라면 무의미하다.

오늘 우리말 한 토막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보통 세 번 밥을 먹는데, 이 하루하루의 끼니를 '세끼'라고 한다.

세끼 중 아침과 저녁은 순우리말이다.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까지의 시간을 '아침',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를 '저녁'이라고 부른다. 또 그 시간에 끼니로 먹는 음식도 각각 '아침' '저녁'이라고 이른다.

아침저녁과 달리 점심은 한자어이다. 16세기 '점심'이라는 형태로 쓰였던 점심은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의 끼니를 나타내는 말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7세기에 '점심 끼니를 위한 음식, 요리'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점심은 작고 둥글게 찌는 표를 뜻하는 '점(點)'과 마음을 의미하는 '심(心)'이 합쳐진 글자이다. 점심의 유래 중 이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중국 남송(南宋)의 장군 한세충(韓世忠)이 금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일이다. 그의 아내가 굶주린 군사들을 위해 만두를 빚었는데 수가 너무 많아 이들에게 넉넉하게 줄 수 없게 되자, "만두의 양이 많지 않으니 마음(心)에 점(點)이나 찌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나누어 주었다. 마음에 점을 찌듯 시장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 먹는다는 데서 점심이 유래했다는 설이다.

세계 속 점심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선원(禪院)에서 선승들이 수도를 하다가 배고플 때 조금 먹는 음식을 '점심'이라고 한다.

이렇듯 점심은 원래 허기를 달랠 목적으로 간단하게 조금 먹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이것이 일반에 널리 쓰이면서 의미가 전이되었다. 오늘날 점심은 정오부터 반나절쯤까지의 동안이나 그때의 끼니를 이르는 말이다. 식사량보다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쁜 일상에서 점심은 하루를 힘차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리라. 오늘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맛있게 먹고 활기찬 오후를 보내길 바란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Just the way you are



stinger
MEISTER



The Power to Surprise

| 최고출력 304마력 스마트스트림 2.5터보 엔진으로 더 강력하게 |
| 수평형 리어컴비라мп와 쿨링 나파가족 시트로 더 프리미엄하게 |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AUTO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Care Service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스텔러 2.5 가솔린 터보 18인치(올시즌) 자동8단 2WD: 복합 11.2km/ℓ (도시: 9.8km/ℓ, 고속도로: 13.4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690kg | 복합CO₂배출량 151g/km - 4등급 ▶ 스텔러 2.5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2WD: 복합 10.8km/ℓ (도시: 9.7km/ℓ, 고속도로: 12.4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05kg | 복합CO₂배출량 156g/km - 4등급 ▶ 스텔러 2.5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2WD: 복합 10.6km/ℓ (도시: 9.6km/ℓ, 고속도로: 12.1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05kg | 복합CO₂배출량 160g/km - 4등급 ▶ 스텔러 2.5 가솔린 터보 18인치(올시즌) 자동8단 AWD: 복합 10.2km/ℓ (도시: 9.1km/ℓ, 고속도로: 11.8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55kg | 복합CO₂배출량 166g/km - 4등급 ▶ 스텔러 2.5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AWD: 복합 10.0km/ℓ (도시: 9.0km/ℓ, 고속도로: 11.5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70kg | 복합CO₂배출량 170g/km - 4등급 ▶ 스텔러 2.5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AWD: 복합 9.9km/ℓ (도시: 8.9km/ℓ, 고속도로: 11.5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70kg | 복합CO₂배출량 172g/km - 4등급 ▶ 스텔러 3.3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2WD: 복합 9.0km/ℓ (도시: 7.9km/ℓ, 고속도로: 10.7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775kg | 복합CO₂배출량 192g/km - 5등급 ▶ 스텔러 3.3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2WD: 복합 8.8km/ℓ (도시: 7.9km/ℓ, 고속도로: 10.2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775kg | 복합CO₂배출량 192g/km - 5등급 ▶ 스텔러 3.3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AWD: 복합 8.4km/ℓ (도시: 7.4km/ℓ, 고속도로: 10.0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845kg | 복합CO₂배출량 202g/km - 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